KIRA 2011 09 R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WWW.KIRA.or.kr 특별칼럼 건축계의 최우선 과제와 협회의 노력 시 론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소고 설계자가 자재선택권을 가져야한다

A R C H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포르

www.kkpc.com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쳐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 (054)287-2883 TEL. (02)555-2055(代) FAX (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 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02)333-4448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FAX: 054)973-0067



A better environment inside and out.™







<mark>콘덴싱의 길,</mark>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좋습니다

콘덴싱이리는 말조차 생소하던 23년 전,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 보일러를 만든 경동나비엔

이제 모두가 콘덴싱 보일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니

지난 세월이 보람되게 느껴집니다

이 길을 걷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의 겨울은 더 따뜻해지고

지구는 더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경동나비엔은 그렇게,

콘덴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세계최초 리얼 A3 컬러 잉크젯 복합기

브라더 MFC-J6710DW



브라더가 드리는 할짜배기 혜택 다 누리세요

이 한 대로 A3용지 인쇄, 스캔, 복사, 팩스가 가능합니다.

_월 66,733

12개월 무이자 할부(단, BC카드 결제 시)

브라더 한국지사 홈페이지에서 프린터 구매 등록하신 후, 잉크 4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시면, 15% 할인해 드립니다.



₩**H7,000**

₩ **99,000**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3 창우빌딩 2층 Tel 02-572-4350 Fax 02-572-4363 http://www.brother-korea.com



고객센터 1577-3340

최일환 대리 ||hwan.choi@brother-korea.com HP.010-2291-5047 윤경현 대리 kh.yoon@brother-korea.com HP.010-6228-0703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영상지원 프로그램

2011, 11, 4 ~ 11, 10 ■ 인천건축문화제

2011. 11. 4 ~ 11. 6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2011. 10.4 ~ 10.10

■ 경상북도건축대전 ■ 전라북도건축대전

2011. 11.11 ~ 11. 13 2011. 10.31 ~ 11. 4 ■ 제주건축문화축제

2011, 11,10 ~ 11, 12





신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양성 정규과정

-제8기 교육생 모집-

■ <mark>정규과정 제8기 교육대상자</mark> : 재직근로자



■ 모집일정 및 모집인원

1. 서류 접수기간: 2011년 10월 4일(화) ~ 10월 14일(금)

2. 서류합격자 발표일: 2011년 10월 19일(수) 3. 면접전형일: 2011년 10월 22일(토) 4.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1년 10월 26일(수)

5. 모집인원: 60명



■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1. 교육기간: 2011년 11월 2일(수) ~ 2012년 2월 1일(수) 2. 교육시간: 주 2회(수, 토), 일 6시간(13:00 ~ 19:00)

3. 교육장소 : 건축사회관 3층 전용교육장





■ 2012년도 교육일정 안내

과 정	기수	교육대상(모집인원)	교육기간	
정규과정 (130시간)	97	재직근로자(60명)	'12,03,03 ∼ '12,05,23	
특별과정 (40시간)	47	건축사사무소 대표(60명)	'12,03,22 ~ '12,05,24	

 $'12.03.22 \sim '12.05.24$

○교육비는 무료이며, 다만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생은 교육예치금(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만 반환함.

○문의처: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교육팀, 02-3415-6857,8

※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교육대상자 발표 등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www.saa.or.kr) 및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ARCHITECTS 시론 특별칼럼 건축계의 최우선 과제와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소고 협회의 노력 _김형수 _강성익 설계자가 자재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_서용주 회원작품 만평 _김진균 38 회원작품 회원작품 회원작품 미아1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34 40 50 회원작품 _____ 서울교육대학교 총징 60 68 설계경기 연재 시화지역 통합문화관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제주이전 사옥 79 91 건축마당 건축기행 협회소식 자유로운삶을 꿈꾸며(中)

발 행 인	강성익
담당이사	정익현
위 원 장	박찬정
위 원	구만열 · 김희곤 · 송호섭 · 이동우 · 정병협 · 최동호
취재·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편번호	137-877
전 화	대표 (02)3415-6800
팩 시 밀 리	(02)3415-6898~9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주)화신문화사 Tel: (02)2277-0624

홍보편찬팀 (02)3415-6862~4

광고문의

_정병협 2011 수원지역건축사회 남도건축기행 _장미경

건축계소식 해외건축 동향 _김은미 통계

SPECIAL COLUMN

Priority Subject of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ffort of KIRA

Kang, Sung Ik

FOCUS

Essay on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_Kim, Hyung-soo

The Architect must have a right of material choice Seo, Yong-joo

Vol. 509 August 2011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1년 09월호 통권 509호

Contents

18

CARTOON

_Kim, Jin-kyoon

Gangseo-gu Women's Cultural Center and the Children's Library

_Kong, Soon-ku · Jung, Sang-mo + Yoo, Dae-geun

47

Mia12, Newtown district Residential Renewal Project

54

60 COMPETITION

GEPS(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Headquarter Office

SERIAL

Changes in Architecture _Yoon, Ki-byung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_Bang, Seon-joo

79 ARCHITECTURE TRAVEL 91

Dreaming that my life is free _Chung, Byung-hyup

2011 JeollaNam-do Architectural Trip of Association of Suwon Architects _Chang, Mi-kyung ARCHITECTS' PLAZA

Kira News Archi-Net Overseas News Review _Kim, Eunmee Statistics

Publisher Kang, Sung Ik Director Jeong, Ik-hyun Committee Chairman Park, Chan-jung

Editor

Committee Ku, Man-yeol & Kim, Hee-gon & Song, Ho-seob & Lee, Dong-woo & Chung, Byung-hyup & Choi, Dong-ho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Address

137-877 Zip Code (02)3415-6800 Tel (02)3415-6898~9

건축계의 최우선 과제와 협회의 노력

Priority Subject of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ffort of KIRA



강성익 │ Kang, Sung lk, KIRA President 대한거축사현회 회장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홍익대학교 대학원
-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역임

올여름 유난히도 긴 장마와 거듭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요즘 글로벌 신용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전세가 및 물가 급등 등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고, 회원분들 모두가 사무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는 더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건축사 생존권 확보를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매년 본협회 임원, 위원장, 전국 시·도건축사회회장 등이 참석하던 협회발전워크숍에 약 120개 지역건축사회회장들도 참석토록 하여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계기로 회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건축사회는 물론 지역 건축사회까지도 협회의 주요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며,이에 대하여 전 회원님들께 그간의 협회 제반활동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임 후 가장 먼저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지도 자급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국가건축 정책 위원장,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건축사업계의 현실과 건축현 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해법 등을 제시 하였고, 건 축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 다. 제가 올해 초 '협회가 힘 있는 단체로 거듭나 회원들의 울타 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협회는 건축사의 생존 권과 업역확대, 건축사의 위상제고 등에 대한 사안들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건축사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8.30 국회에서 입법 발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축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정안, 그리고 건축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되었거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제도 개선사안은 정부, 국회와의 수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길게는 몇 년이소요될 수 있는 장기전을 요합니다. 또 건축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법·제도 개선노력과 함께 시장확대, 건축교육, 국민인식 계몽, 건축계 화합과 협회역량 강화등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차후에 건축계와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이해해주시고, 협회를 믿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4월 29일에는 그간 정부와 협의해온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건축사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건축사자격등록제도에 맞춰 건축사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축사등록업무도 협회에서 수탁해 실 회와 결합돼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무수련, 시험, 자격등록, 실무교육, 갱신등록 등을 수행할 수 있 게 되어 이에 대한 준비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구조계산 프로그램의 문제는 잘 아 시다시피, '10.10월 내진설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 과와 언론보도(KBS:'10.10.4/'11.4.7)로 인해 국무총리실 합동 조사단의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국토해양부에서 는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 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등 대내 외적인 여건이 우리 건축사에게 결코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았 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구조기술사들의 업역침해 방지와 건축 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구조계산 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방안 을 검토하게 된 것이며, 국토해양부 등에도 이를 근거로 건축사 의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프로그램 시연 과정에도 직접 참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완료 시 점에서 협회와 사전에 상의 없이 개발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 을 정하여 홍보하게 된 것이고, 협회는 이에 강력 항의하고 지 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과정에서 회원 여러분께 다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 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속히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는 회원도 많고. 협회 차원에서 구매조건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 나.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조기술사와의 업역문제 대처.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프로그 램 개발을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었으며, 특히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할 경우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여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했던 사안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우수건축자재 발굴과 건 축산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건축산업대전(10월27일~10월 30일) 개최, 한국건축문화대상(10월27일~10월30일), 서울국제 건축영화제(10월20일~10월24일)는 오는 10월에 집중적으로 개 최하여 행사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건축사가 국민들에게 더 나 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건축이 사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의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 미는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정 부로부터 수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규과정(7기)과 특별과정 (3기)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건축에 대한 지속적 인 교육을 통해 건축사는 물론 건축계 종사자 모두에게 친환경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 합니다

국제사업으로는, 2017년 UIA세계건축대회 유치를 범건축계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계 123개국, 130만 건축사를 대표하는 UIA 세계건축대회는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전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건축의 브 랜드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 며, 한국건축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대회 유치결과는 9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2011 UIA 동경 세계건축대회'기간 중에 결정됩니다. UIA 대회 유치 는 과거 10여 년 전부터 범 건축계에서 추진해오던 사안으로, 특 히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전 건축단체가 합심하여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 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사공제조합이 지난 1월 출범하여 현재 1,200여 회원사가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축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건축사는 업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었고. 모든 건축물의 설계 · 감리계약 또는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손해 배상보험 및 공제가입 여부를 관계부처 및 모든 지자체, 국가기 관에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을 시달한 바 있 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건축사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崮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소고

Essay on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김형수 | Kim, Hyung-soo, KIRA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집행위원장

약력

-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 건축시공기술사
- 서울시 건축심의위원 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심의위원

올해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3회를 맞이한다. 작년과 같이 이화여자대학교 ECC관에서 10월 20일부터 5일간 진행이 된다. 이렇게 영화제가 생명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미래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이 영화제를 승인을 해주신 임원님과 회원님들 덕분이다.

작년 행사와 달리 올해 처음 진행되는 행사는, 지방의 건축문화 제에 건축 영화 상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부산, 인천, 대전, 경상북도, 전라북도 그리고 제주도의 건축문화제에 1, 2회 영화제 상영작 중 최고 흥행작을 제공한다. 서울에서 영화를 선별하여 기획하고, 필름을 제공하면 어느 도시나 훌륭한 영화제가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효율적이고 매력적이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처음 기획되어진 이유는 어떻게 하면 건축이 일반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소개되고, 홍보될 수 있을까 하는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아름답고, 세련된건축물들이 근래에 많이 디자인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건축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즉 콘텐츠는 풍부한데 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릴 대중적인 코드가 취약한 상황이다.

건축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패널과 모형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기획되어지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코드를 접목시킬 수 있는 행사도 필요하다. 영화라는 보다 국민들에게 친숙하고 일반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이유에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4년간 기획되어지고 올해로서 3회째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관객이 온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싶은 고등학생 딸의 손을 잡고 온 어머니도 있었고 대학교에서 건축과 진학을 위해 스스로 건축동아리를 만들어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었다.

어려운 환경의 건축사사무소에 재직하고 있었던 어떤 직원들은 건축에 대한 꿈을 다시 한 번 얻어가게 되었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건축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오셨다. 극장은 항상 만원이었으며 영화관이 생긴 이래로 최대의 객석 점유율을 올려 영화관 관계자들이 무척 놀라기도 하였다. 건조하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건축영화중에는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는 영화도 있었다. 루이 칸의 일대기를 다룬 "My Architect" 와 "프라하의 눈" 이 그러한 영화였다.

작년 영화제의 경우 100군데 이상의 언론매체에 소개되어 건축 계 행사 중 가장 많은 언론 노출기록을 가지고 있다. 건축지뿐만 아니라 여성지, 영화지, 문화지 및 중앙 방송 매체에 친근하게 노 출되어 건축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에게까지 건축이 홍보되었다.

지금은 영역간의 구분이 파괴되어지는 하이브리드의 시대이다.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건축의 풍부한 콘텐츠와 영화의 대중적인 접 근성이 융화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하이브리드라는 패러다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놓은 한국의 우수한 건축문화를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널리 알리기 위하 여서는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固**

| KAFF 2011을 준비하며

설계자가 자재선택권을 가져야 한다

The Architect must have a right of material choice



서용주 | Seo,Yong-joo, KIRA 대한건축사협회 사업위원회 위원징

약력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우건축 대표 서울메트로 디자인 자문위원
- 충남대건축과, 연세대도시공학과관악, 노원, 디자인심의위원

*전국, 또전, 디자진검의귀전

우리는 마음이 허하다고 아무것으로나 채우며 살고 있지는 않나, 설계를 업으로 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불황을 겪다보니 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꽤 긴 시간 동안 시달린다. 계약도 하기 전에 계획 설계는 끝나고 이사무소 저사무소 도면 두세 벌을 가지고 시작하여 막상일이 진행되면 진이 다 빠지고 설계비는 비교견적에 기본경비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라도 건축사사무소를 유지하기위해 손을 놓을 수 없는 소규모 사무소 건축사들의 현재 모습이다.

충분히 확보된 설계비에 연구도 하고, 동질의 건물 답사도 해보고 대안도 모색해보며, 모형도 만들고.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좋은 설계 작품이 창작 될 텐데, 현실은 꽤 거리가 멀다. 그런 중 일부는 설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가? 설계도서에 정확한 재료명을 세부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통칭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꽤나 많다. 또한 특기 시방을 작성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현실이다. 그만큼 설계자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적은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된 경우가 허다하니 제대로 건축 될 리가 없다. 최저의 조건에 아무것으로나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형태는 구현될지 몰라도 그 형태가 제대로 옷을 입었는지는 설계자도 헷갈리는 것이다.

설계를 하면서 그에 따른 자재 선택은 건축사가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면에 명시해야 하며, 통칭으로 설계해서는 안 된다. 자재선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꼴이되는 것이다. 건축주·시공자는 설계자가 아니다. 설계자의 생각대로 그 재료, 그 색상, 그 물성 그대로 건축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만큼 건축사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설계에 임해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습관적으로 사는 부분이 있듯이 설계도 그런 부분은 없는지 따져 볼 일이다.

제6회를 맞는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2011)은 최근의 화두인 친환경 건축에 걸맞는 "친환경 건축 재료의 발견" 이란 주제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COEX Hall A에서 열린다. 행사와 더불어 "우수 건축 자재 추천제"를 기획하고 있다. 좋은 건축 자재를 많이 추천해 전국 건축사들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새롭게 생산되는 건축 자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우수건축자재추천을 통해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KAFF Detail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전국 건축사에게 무료 공유할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 협회가 인증한 우수자재를 설계에 반영해 업체와 협회, 건축사들과의 유대강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KAFF 2011은 건축사협회의 비 예산 사업이다. 협회의 재정과 관계없다지만, 잘못되면 협회가 주최인 만큼 협회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 경향하우징페어가 성공한 컨벤션사업인 만큼 수요가 있는 컨벤션사업에본 협회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집단인 만큼 차별화하고, 잘 육성한다면 협회의 별도 수익 법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전시사업이다.

KAFF 2011 이라는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갖춰야 할 것이 많으나 최근 경기와 맞물려 어려움이 많다. 규모가 큰 업체들의 홍보비 절감으로 행사 참여도가 전무하다보니 대형부스 없이 소형부스 여러 개로 공간을 채운다는 게 힘이 부친다. 시간도 부족하고 업체마다 자체홍보를 계획하고 전시홍보예산은 없다는 얘기뿐이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다.

전국 건축사들의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마음을 구하고자 한다.**間**



"산사태 덕분에 '도심형 스키장'이 공짜로 생겼네요" "내가 복구작업 서두르지 말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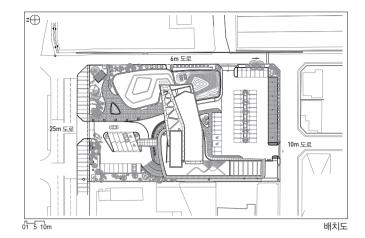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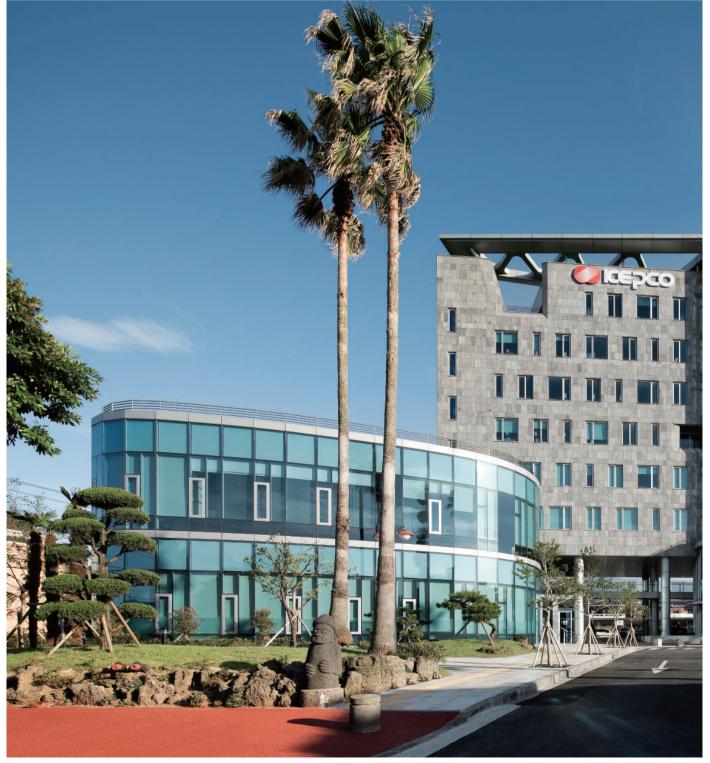
김진균 | Kim, Jin-kyoon



Project team Kim,Joung-il / Eo,Yun-ha / Park, Jun-pyo /				
Cho, joon-sang / Kim, Jin-seop / Kim,Yun-ah				
Clien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Location Jeju-do Jeju-si Yeon-dong 322-2				
Site Area 6,315.30m ²	Building Area 2,128.15m ²			
Gross Floor Area 9,404.42m²	-			
Building to Land Ratio 33.70%				
Floor Area Ratio 107.87%	Structure R.C			
Structural Engineer Total Structural Eng & Const.				
HVAC Engineer Mido mechnical & engineering co., LTD.				
General Contractor Kolon E&C				

Building Scope | B1-8F











2011 Korean Architecture Works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건축물의 표면이 열리면서 void와 solid가 입체적으로 결합되는 유 기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사옥을 추구하였다.

부지는 격자형 도시구조로 된 제주도청옆 공공업무지구에 위치하며 남쪽으로는 한라산, 북쪽은 바다로 열린 조망을 가진다.

건물은 대지와 도시의 축에 동선의 흐름이 반영되어 진입방향으로 기울어져 방문자를 환영하며, 제주의 특징적 형태인 유기적 곡선이 배치와 매스에 반영되었다.

북측 주 진입부는 부드러운 선형으로 돌출된 영업장 매스가 건물의 인지성과 정면성을 부여하고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위해 조성된 전면의 조경공간은 오름의 형태가 도입되었 으며 야지수 등 기 존수목은 보존되었다.

남측 후면은 직원과 서비스치량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이 되고 창고와 전기원실 등이 서측후면 에 면하여 원활한 작업동선이 형성되며, 전면부와 필로티로 연결되어 북측에서 진입시 개방감을

고층부의 사무공간은 동서로 가로지르는 중복도를 중심으로 사무실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한라산 으로의 조망과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였고, 수평차양과 태양광전지판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 형 친환경계획을 구현하였다.

북측면은 따뜻한 현무암과 유리로 덮인 코어가 정면을 형성하며 역동적인 매스의 결합과 재료의 대비로서 시원한 입면이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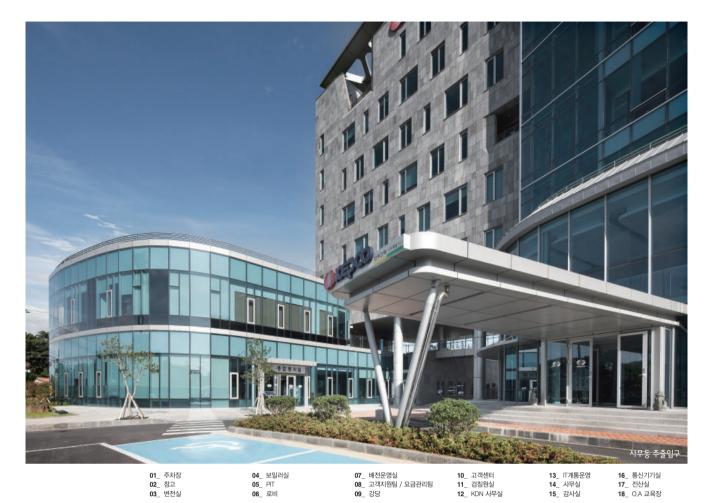
2.3층의 휴게데크과 8층 식당의 전면데크는 자연과 닿는 표면적을 넓히게 되고 각각 다른 레벨에 서 펼쳐지는 휴게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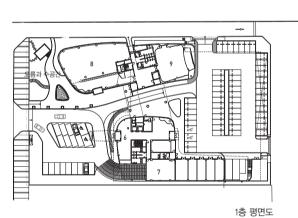
This building is designed through the organic and environmental idea, interplay of theedimensional void and solid and opened facade to the beautiful landscape of Jeju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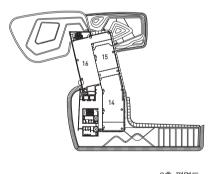
The site, placed in the edge of the grid-type public business district nearby Jeju Provincial Governmental Office, has the Halla mountain view to the south and the ocean view to the north. The inclined building design to the main entrance reflects the flow of the axis of the land and $\ensuremath{\mathsf{I}}$ the city, while the layout and the mass follow organic lines from the unique style of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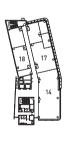
A round-shaped shopping mass strengthens the recognition and the frontality of building. The front garden introduces the regional Orm characteristics and the existing forests are reserved for general users and inhabitants. The extra parking lot for the staff in the backyard and warehouse and powerplant in the west backyard make the working circulation more convenient and the connection to the frontside by piloti improves the openness with the access from the north.

The upper office area which is divided by middle corridor to the east and west is laid out toward the south for the fine outer view and favorable working conditions. The horizontal shading and the BIPV system are planned for energy-saving environmental purpose. The core and the north facade covered with warm basalt and glass result in the refreshing impression through contrasting the combination of the dynamic masses with the materials. The 2nd and 3rd floor resting decks and 8th floor front deck are the multi-level open sapces and those expand the contact surface with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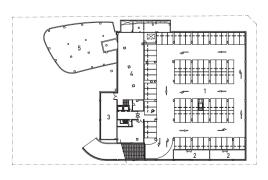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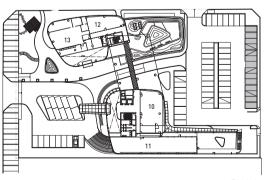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01 5 10m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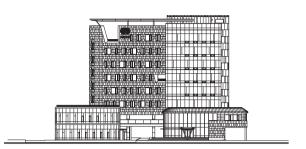








북측면도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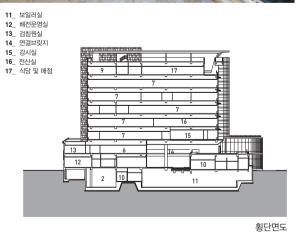












종단면도

Gwan Ryu Heon

Project team | A.M Architects & Partners

Client | Lee, Sam-im

Location | Gyeongsangbuk-do Seongju-gun Wolhang-myeon

Jibang-ri 218

Site Area | 793m² Building Area | 116.63m²

Gross Floor Area | 94.73m²

Building to Land Ratio | 14.70%

Floor Area Ratio | 11.94%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Jins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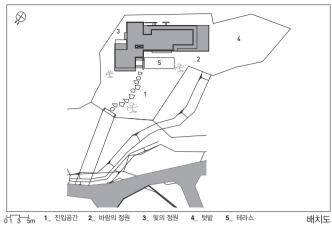
HVAC Engineer | Seojin, Newhanguk

General Contractor | Park, Ja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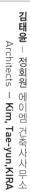
Building Scope | 1F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Water paint

Photographer | A.M Architects Cost | not disclosed



01 3 5m 1_ 진입공간 2_ 바람의 정원 3_ 빛의 정원 4_ 텃밭 5_ 테라스





경계에서…

입구에 세워진 무채색의 '비워진 프레임'을 지난다.

회화적인 패턴으로 구성된 극적인 스케일을 가진 부유(浮遊)하는 또 다른 '채워진 볼륨'을 지나 내 부로 들어선다. 순간 천창에서 내려오는 확산된 자연의 빛을 느낀다.

동적인 각도로 유입되는 빛과 긴 통로의 흐름은 유리벽을 투과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외부의 데 크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다시 시선은 투명한 프레임을 통해 서서히 자연으로 향하고 그 흐름을 들여다본다.

비워진 틈 사이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수평적인 가벽과 긴장감을 유발하는 수직벽은 극적인 대비효과로 나타난 다. 비워진 볼륨사이로 시선은 투과되고 드러나는 자연의 선들은 연속적으로 열린다. 가벽의 흐름을 타고 전개되는 동선의 움직임은 경계에서 언덕을 지나 자연 속으로 이어진다.

관류헌은 물리적 경계와 자연 사이에 존재하는 여백의 공간을 통해 '은유적인 건축의 흐름'을 보는 Gwanryuheon is the house for contemplation of 'the flow of metaphorical architecture' through a blank space between physical border and nature.

2011 Korean Architecture Works

The eyes pass an 'empty frame' in an achromatic color, which is stood at an entrance. They pass another floating 'filled volume' in a dramatic scale with picturesque patterns and

At that moment, they feel the diffused light of nature that comes down from the ceiling. The light streaming at a dynamic angle and the flow of a long path are permeated into a glass wall and organically connected with exterior decks which spread successively. Then, they gradually go toward the nature again through a transparent frame and look into the flow.

Through an empty 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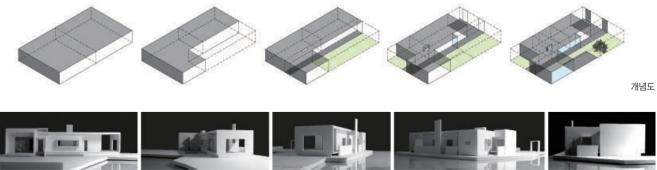
A horizontal fake wall that goes with the flow of nature, together with a vertical wall that arouses tense, shows a dramatic contrast effect.

They are permeated through empty volume and unveiled lines of nature open successively. Proceeding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the fake wall, the movement of circulation is connected into nature after passing a hill on the b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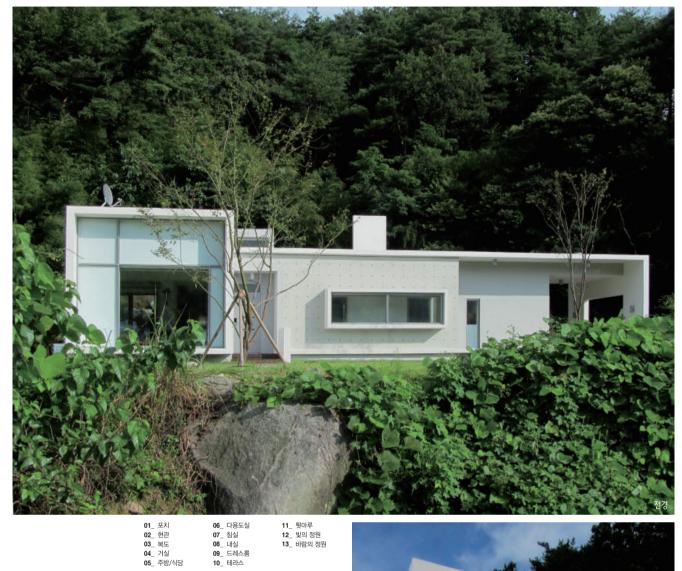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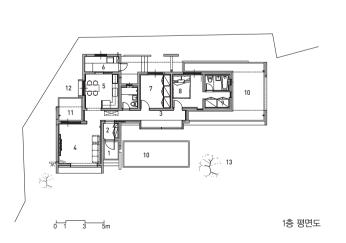






06_ 다용도실 07_ 침실 08_ 내실 09_ 드레스룸 10_ 테라스

11_ 툇마루 12_ 빛의 정원 13_ 바람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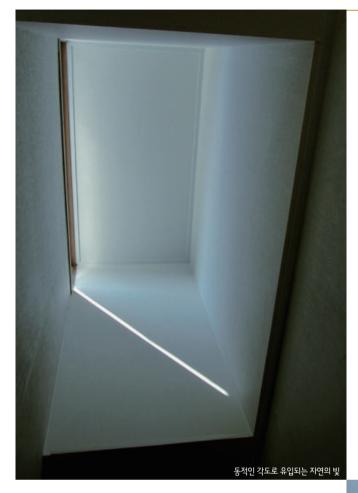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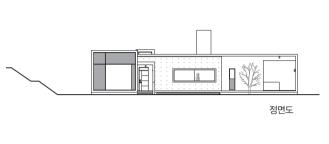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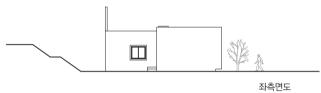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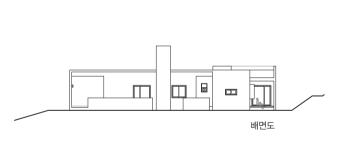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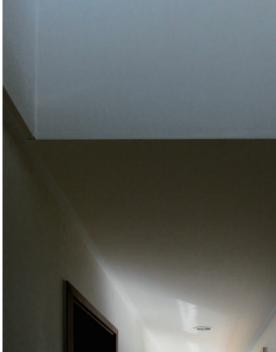














단면도

송대 휴디디사(Songdo Huneed

Project team | Yang, Seoung-tae / Kim, Hyoung-seob

Client | Huneed Technologies

Location | Incheon-si Yeonsu-gu Songdo-dong 11-11

Site Area | 25,946.0m²

Building Area | 9,203.42m²

Gross Floor Area | 27,853.02m²

Floor Area Ratio | 74.31%

Building Coverage Ratio | 35.47%

Structure | S.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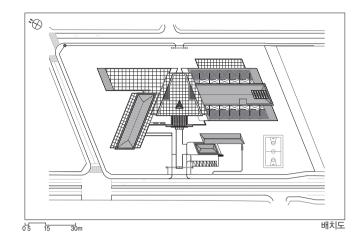
Electrical Engineer | Line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 DaeWoo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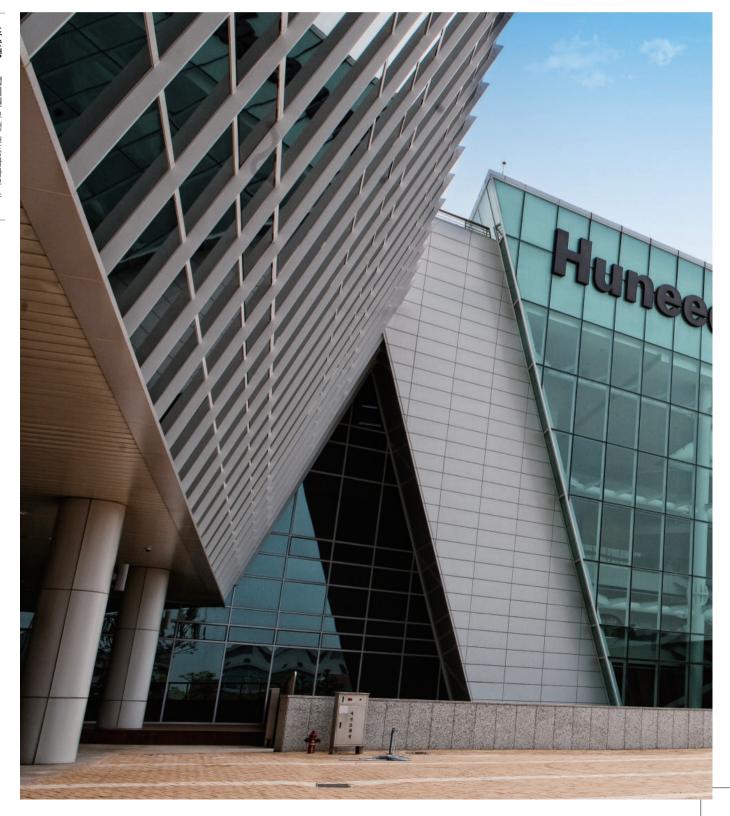
Building Scope | B1F-3F

Finishing Materials | Metal sheet Low-e Pairglasi

Photographer | Jung, Gwang-sik Cost | not disclosed



조순행 — 전화면 무형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Jo,Sun-haeng, KIRA



휴니드는 통신장비, 전술시스템을 군에 공급해온 전문방산기업으로 인천시 송도에 새로이 사옥겸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다.

군의 역동적인 기능, 활동 및 정보를 디지털 시대의 다차원적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군의 모습과 연관 관계를 가진다.

- · 대지의 상황과 주변 컨택스트에서 추출한 디자인들을 엮어 새로운 상징이 되는 휴니드 사옥을 제안한다.
- · 상징성 : 지식정보단지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이고 독창적 형태의 계획
- · 기능별 조닝을 통한 독립성 확보 및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직 및 수평 조닝

건물의 매스는 사무와 공장, 휴게공간 등으로 나누는데 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어울리도 록 조합하였다.

공장과 시무, 사람을 위한 휴게기능이 모여 기업을 상징하는 건물을 주변의 자연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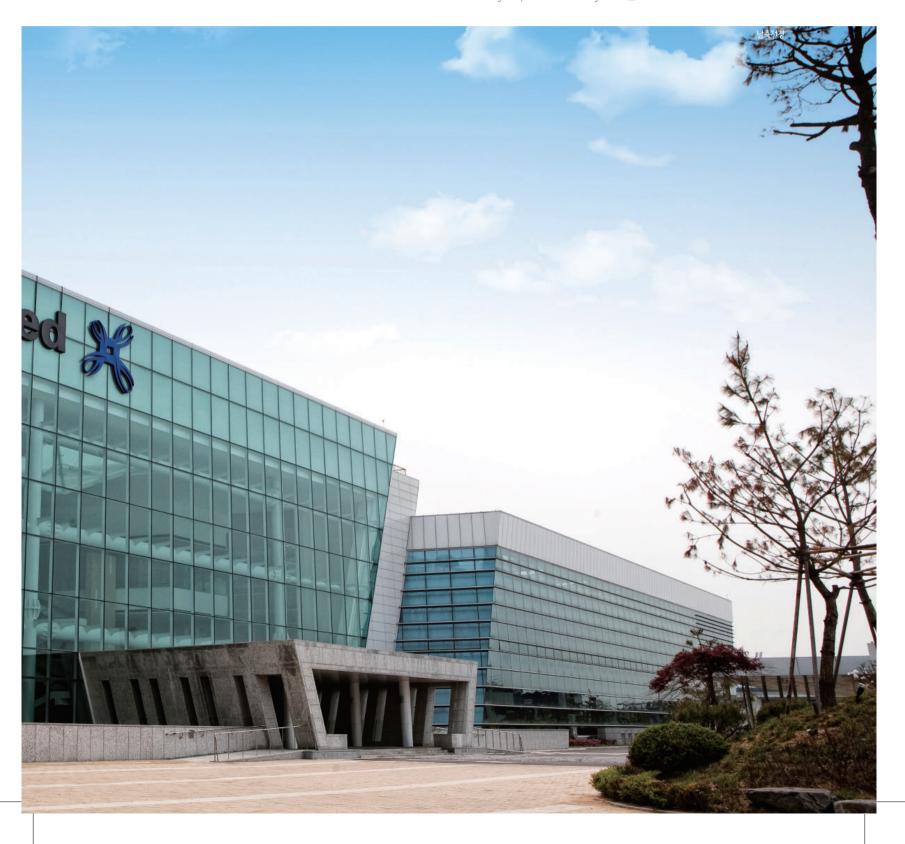
The Hunid is a company for defence industry. It has been supplying military equipments such as communication and tactical system for Korean army. Recently, it built new building-cumfactory at Song-do in In-Cheo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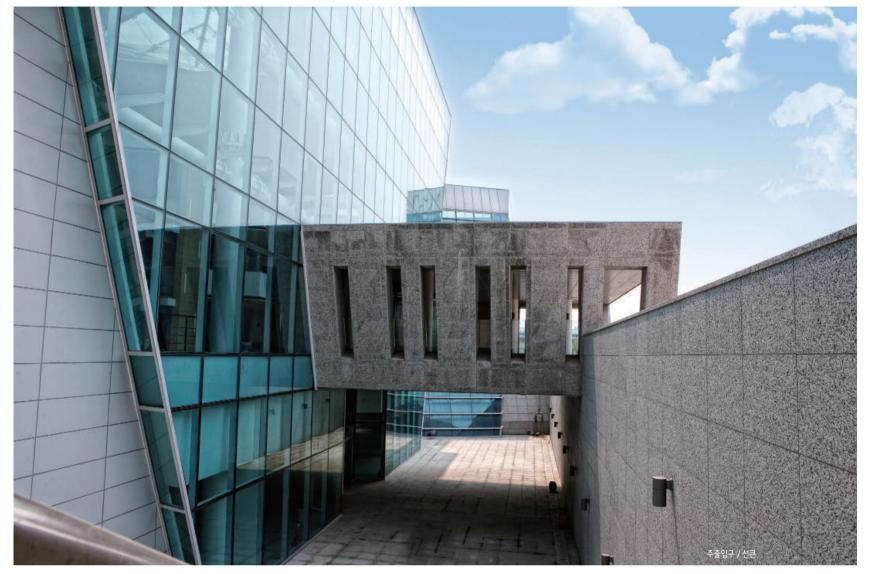
With multidimensional spectrum in Digital Age, we try to indicate army's activities for dynamic function and information. Also, those activities is related to military's imagine for the endless development.

- · There suggest that the Hunid should become a new symbol through the best design; considering with the current condition of land and the surrounding context.
- · Symbolism: One leader of BIT zone(Bio Information Technology zone) with a plan for emblematic and inventive idea.
- · Independence securement through functional zoning, verticality and horizontality zoning for what can mutual intimately connection.

The mass of building is classified as office, factory, and rest zone. Then, we combined each space to consider as matched feature.

The symbol of institutions like factory, office, and rest zone for people is inspiring residents to think a great space with surrounding na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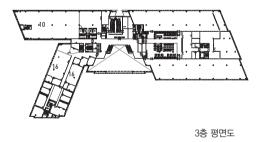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공조실 03_ 강당 04_ 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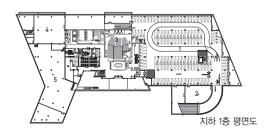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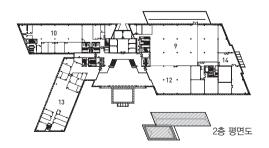
05_ 기계실 06_ 브릿지 07_ 필로터 08_ 환경시험센터

09_ 생산라인 10_ 개발연구실 11_ LAB 12_ M&S/CENTER

13_ 관리지원부 14_ 포장실 15_ 식당 15_ 경영지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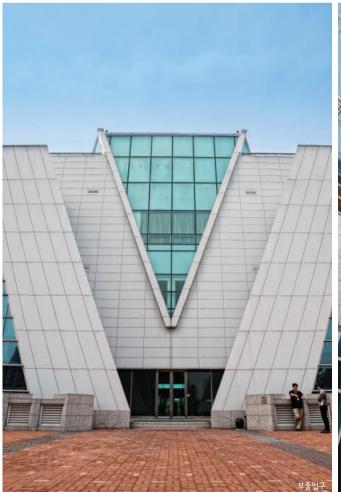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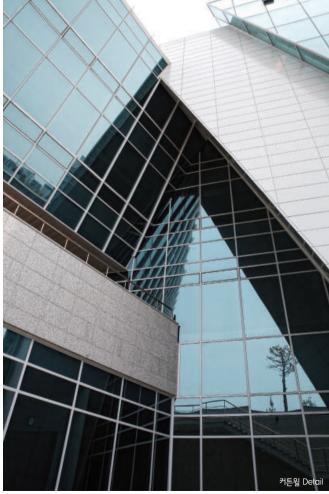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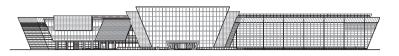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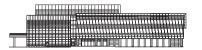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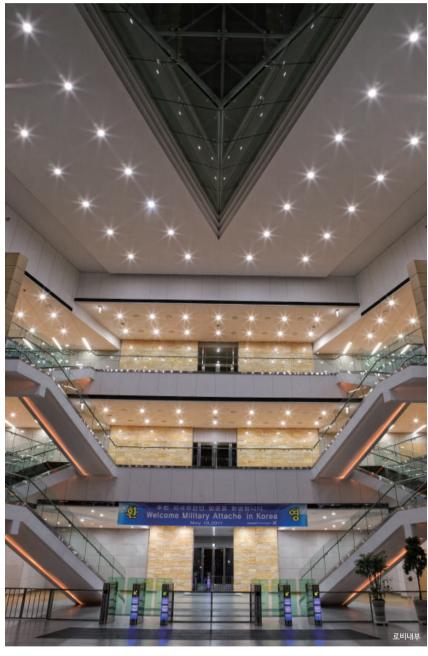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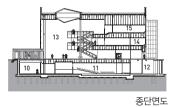
좌측면도







- 01_ 전기실 02_ 사무실 03_ 주차장
- 04_ 개발연구실 05_ 생산라인 06_ 자재창고
- 07_ 수입검사/출하장 08_ 포장실 09_ 식당
- 10_ 선큰정원 11_ 강당 12_ 공조실
- 13_ 그랜드 홀 14_ PT실 15_ 대회의실





횡단면도

Jade 이

Client | Ju, Yeong-cheol

Location | Ulsan-si Buk-gu Sanha-dong 959

Site Area | 1,134m² Building Area | 369.83m²

Gross Floor Area | 1,261.48m²

Building to Land Ratio | 32.61%

Floor Area Ratio | 50.95%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Ju An Engineering(Kim, Sang-jun)

HVAC Engineer | Ha Na Engineering(Jeong, Jin-h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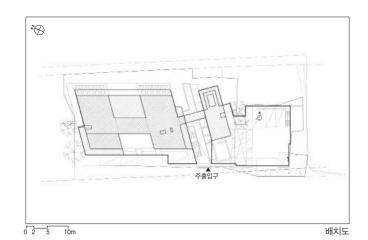
General Contractor | SEONG-AN(Park, Su-heon)

Building Scope | B1-2F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mass concrete, zinc,WPC, T.P.G

Photographer | Seong, In-soo

Cost |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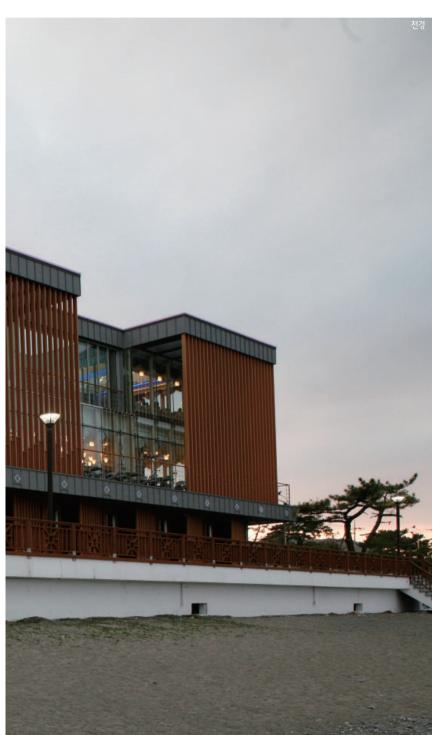




아디라 + 화건에 — 전화면 (자)초석 건축사사무소 + (자)차리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Yun, Deock-won + Park, Geon-young, KIRA**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대륙에서 1월 1일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이다. 레스토랑 제이드가 있는 정자는 간절곳에서 바다로 멀지 않다. 정자도 정월 초하루 일출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는 곳이다. 평소 정자 해변에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 동해를 바라보는 것도, 떠오르는 해에 새 희망을 읊조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정자는 수석의 산지이기도 하다. 까만 오석질의 자갈(몽돌)이 해안선에 길게 늘어져 결정을 이룬다.

'서양에 에메랄드요 동양엔 비취'라는 말처럼, 동양 보석 비취는 한자로 '비(翡)'는 적색을, '취(翠)' 는 녹색을 의미한다.

건축사는 제이드를 새로운 보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형태를 만들었다. 적색의 해와 함께 바 다를 상징하는 녹색의 바람을 맞이하는 집 제이드는 바다를 향하고 있다. 떠오르는 해와 바닷바람 을 맞으며 그 해에 기도하는 바람을 담는 공간을 만들었다. 높이제한 법적규제로, 바다 조망을 향 한 지향성을 지닌 단순한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하는 다양한 시선이 가능하도록 형태를 병렬로 집중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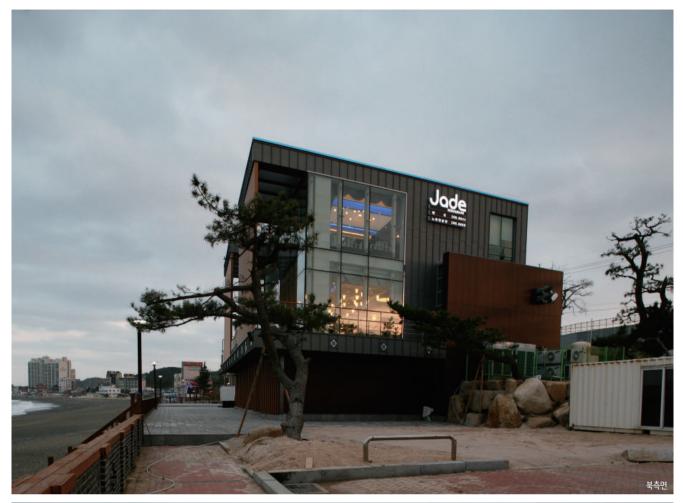
대지 형태로부터 발생한 두 축은 시각적 차이가 크지 않지만, 사선으로 형태의 미세한 변화를 유 도한다. 바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각도는 데크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창안에서, 복도에서, 룸과 홀에서 발생한다. 넓은 유리창과 목제 루버는 바다 일출을 수직적인 그림틀로 바라볼 수 있 도록 무한히 열린 바다를 시각적으로 변화시킨다.

Ganjeolgot, Ulju-Gun Ulsan-City, is the place where sun rise first on January 1st between the Korea peninsula and the Eurasian continent, Jeongja where the restaurant Jade located is not far away over sea from the Ganjeolgot. People gathered at Jeongja and wait through night to see the sunrise of New Year's Day. As usual it is pleasant to have a dinner and beverage to see a East Sea at Jeongja sand beach, to whisper a New Year's wish as sun rise. Jeongja is place of producing and gathering stone district. A black stony place made scenic view point along the

As they said "Jade in the East and Emerald in the West at same time", oriental jewel-green jadeite or jade- means in Chinese character 'Bee(錫)'is red color, 'Chee(翠)'is green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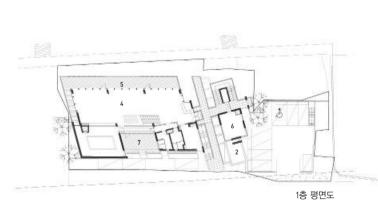
Architect carved the form with mind of new jewel on the beach. The house Jade which is welcoming the wind of green-symbol of sea and red sun, confronted to the sea. With rising sun and sea breeze, architect tried to make the space containing the New Year's wish to pray. Because of height limit regular code, it caused simple mass with the scenic view to the sea. So it concentrated parallel for small mass to make various glance to the sea.

Two axes generated from the land estate have a small visual difference, but subtle changes in the form of diagonal leads. Various sight and angle to the sea is made from the deck, up and down the stairs, in window, in the hallways, in rooms and hall. Wide glass window and wooden louvre make open sea to see open viewpoint with rising sun from the sea through vertical picture fram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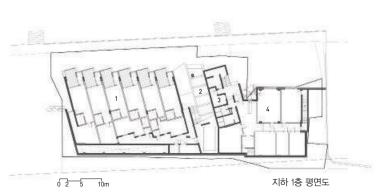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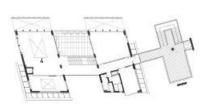




01_ 단독주택(다가구) 02_ 수공간 03_ 관리실

04_ 제2종 근린생활시설 05_ 옥외데크 06_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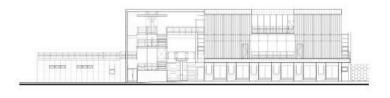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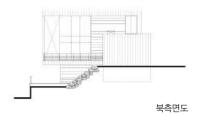


동측면도























01_ 참실 02_ 거실! 03_ 주방 04_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05_ 숙소



서명철·박래훈 — 전</mark>화면 (KP))하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Seo, Young-cheol**·**Park, Rae-hoon, KIRA**

아 파 트 Project team | Lee, Won-myoung/Moon, Suk-hoon, Jang, Ji-yoon/L'EAU

Client | Mia12, Newtown district Residential Renewal association

Location | Seoul Gangbuk-gu Mia-dong 812

Site Area | 54,047.70m² Building Area | 9,533.16m²

Gross Floor Area | 193,337.20m²

Building to Land Ratio | 17.64%

Floor Area Ratio | 239.13%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MAC Engineering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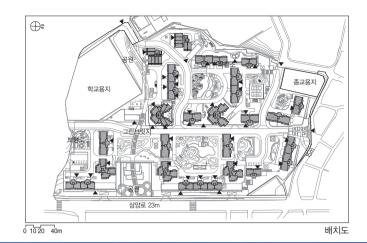
HVAC Engineer | CHUNGWOO ENG Co.,Ltd

General Contractor | SAMSUNG C&T CORPORATION

ENGINEERING & Construction Group Building Scope | B3-25F

Finishing Materials | Water-based paint / Granite

Photographer | Woo, Kyung-sun Cost | not disclosed











미야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강북지역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노후주택 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계획되었 다. 기존의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새롭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도입하여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을 누리며 도시와 단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회원작품 — Works

- 타워형과 판상형의 혼합과 층수의 다양화로 획일적인 주동 배치 지양 및 리듬감 있는 단지배
- 삼양로변은 저층의 주동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여 생활가로 활성화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거리 조성

지형 순응형 계획

- 단지 중앙의 준공용도로 주변에 데크를 활용한 지하층 계획으로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여 경사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

- 북한산 광역녹지축과 연계된 자연친화형 생활녹지 조성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는 쾌적한 입체 보행공간 구축(그린 브릿지) 및 도시주거 공간의 공원화
-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공간구성 자연형 수변 마당등

Mia12 Newtown District Residential Renewal Project is planned to create a pleasant environment by Newtown Business that is aimed to regenerate residential environment of decrepit houses and poor urban infrastructure in Gangbuk area of Seoul.

By pulling down existing old houses while adopting new and various housing types, we intend to make a space where people can enjoy green inside of downtown, where a city is harmonized with housing complex, so is nature with humans.

- Diversifying the number of floors/ Mixing the tower-type with flat-type to avoid uniformed arrangement of blocks but make a rhythmical complex.
- Placing the low-rise block and the street-side commercial facility on the side of Samyang-Ro to revitalize a lively neighborhood.

Typography-adapta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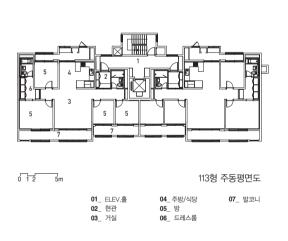
- To take advantage of a slopping land, putting underground parking space and a community center under the deck which is around the semi-public road in the center of the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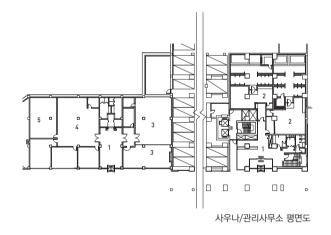
Green plan

- Creating Eco-friendly neighborhood green space connected with wide green axis of Bukhan
- Making pleasant pedestrian space named Green-Bridge that connects between parks / Establishing park-like city residential area
- Establishing a variety of community space by fully securing green space to make its residents can communicate each other (ex: Eco-Waterside ope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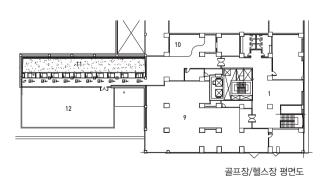


01_ 홀 02_ 사우나 03_ 다목적실 04_ 관리사무실 05_ 방재센터 06_ 문고 07_ 경로당 08_ 주민공동시설 09_ 헬스장 10_ 퍼팅그린 11_ 골프연습장 12_ 옥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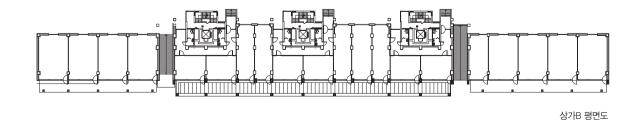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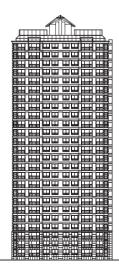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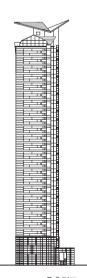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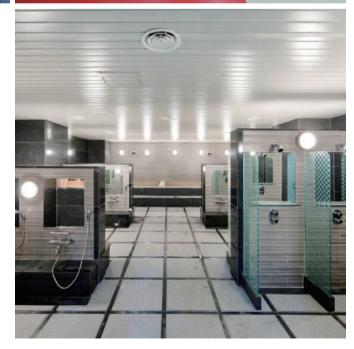








우측면도



30 에 가 여성만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Gangseo-gu Women's Cultural Center and the Children's Library

Client | Gang seo-gu

 $\underline{\mathsf{Location} \; \mathsf{I} \; \mathsf{Seoul} \, \mathsf{Gangseo}\text{-}\mathsf{gu} \, \mathsf{Yeomchang}\text{-}\mathsf{dong} \, \mathsf{281}\text{-}\mathsf{25}}$

Site Area | 1,100.000m²

Building Area | 543.93m²

Gross Floor Area | 4,208.89m²

Floor Area Ratio | 2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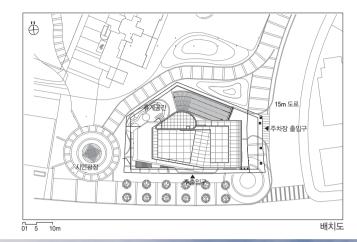
Building Coverage Ratio | 13.66%

Structure | S.R.C

Electrical Engineer | Todam structure engineer

General Contractor | Dongdo

Building Scope | B2-6F





편생마 · 전하에 + 야대미 — 전혜인 (또)건아사 정혜진생사 사무소 + (또)야예산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Kong, Soon-ku** · Jung, Sang-mo + Yoo, Dae-geun, KIRA





2011 Korean Architecture Works



발전하는 강서구의 여성문화와 가족공동체의 장이될 강서구 여성문화회관 및 어린이 도서관은 단순히 교육적 기능을 넘어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여성상을 위한 교육 및 여성복지의 장이 되어 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살이었는 학습의 장이자 가족구 성원의 연결을 위한 매개공간이어야 한다.

선진

어머니의 시랑으로 성장하는 아이들과 사회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여성의 발전을 상징하는 개념을 형상화 하며, 하이테크적인 느낌의 외장 재료를 사용하여 2세기를 선도할 첨단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강서지역의 랜드마크적 요소로 계획하였다.

유기적 연결성

DNA유전자의 고리형태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무한히 연속되는 행태를 개념화해서 어린이들의 성 장과 여성문화 발전의 지속성을 표현하며 벽체와 슬라브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조형적 구조미를 통해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도심속 소공원

1층은 대부분을 필로티로 아파트 진입부의 협소한 공간에 공공의 광장과 소규모 공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을 계획하였으며 뒷마당에 벽찬을 이용한 수공간을 통해 이용자들이 도심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Kangsu-Gu Women's Cultural Center and Children's Library is dedicated for an overall cultural community for women and families. The Center and Library is not only supporting education and promotion of social welfare for women, but it also provides a vibrant and creative place for children to evoke their dreams and imaginations and leads positive and bonded interactions among family members.

Developmen

A mother's love for children and a development of the status of women are turned out to be an objective form. High technological materials are selected for the exterior to express up-to-dated and highly educated socialized cultural women leading the twenty century. As a result, Kangsu-Gu Women's Cultural Center and Children's Library is going to be a land-mark of overall Kangsu-Gu area.

Conn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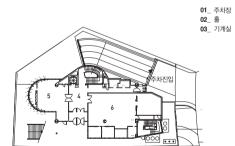
The value of the sustainable cultural development of women and the durable development of children are expressed through endlessly repetitive forms of action, extracted from the rings of genes of DNA. Additionally, The smoothly connected walls and slabs of Kangsu-Gu Women's Cultural Center and Children's Library symbolize the feminine beauty carrying softness and toughness simultaneously.

Park in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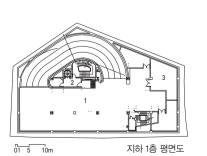
Pilotis are constructed at the first floor of Kangsu-Gu Women's Cultural Center and Children's Library, so a small opened and environment friendly community park is going to be designed, just as popular entrance designs of residential buildings in Korea have been introducing for now. The backyard of Kangsu-Gu Women's Cultural Center and Children's Library carries a water space by utilizing a planned water fountain, so visitors in the Center and Library are going to enjoy the look and feel of nature in the city.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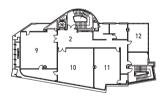
04_ 로비 05_ VIP객장 06_ 은행

비 **07**_ 열람: P객장 **08**_ 서고 행 **09**_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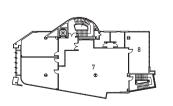
 07_ 열람실
 10_ 제과제빵실

 08_ 서고 및 정리실
 11_ 교앙강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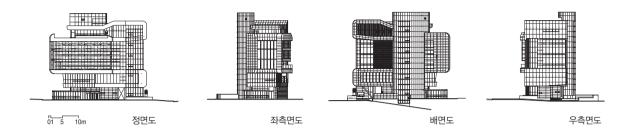
 09_ 요리연습실
 12_ 관리사무실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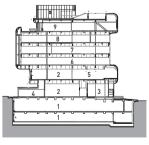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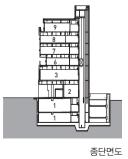
04_ 어린이놀이방 05_ 강당 06_ 어린이자료실

07_ 열람실 08_ 제과제빵실 09_ 교양강좌실









건축 초대석

Invitation to Achitecture



시 항 규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성균관대 수학과 졸 / 성균관대 대학원 석, 박사(이학) / 공 군사관학교 수학과 /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서울교육대학 수학교육과 /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교 수 / 서울교육대학 교무처장 / 2011.8.~서울교육대학 총장

건축의 사회적 지평확장을 위해

이제 우리 자동차나 휴대폰, 조선 등의 세계적 진출, 동ㆍ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G20 주관, 최근의 k-pop 열기 등은 바로 한국인의 힘의 결 과이며, 수많은 국제적 인사들의 잦은 한국 방문은 곧 국력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건축 또한 기술이나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도시, 길, 환경과 녹지, landscape, 지속가능성 등 포괄적 이슈를 떠날 수 없다. 건축 체계에서도 강제적 규제에서 재량적이고 창의적인 틀을 수용하고, 각 지역민의 삶을 기준으로 그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건축사들도 그 책임과 관리, 선도할 역량은 물론 의식적 유연성과 함께 보다 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협회 및 건축사지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바람직한 건 축문화 창달을 위해 먼저 사회 지도층, 저명인, 나아가 일반인에게까지 적 극적 소통을 도모하여 그들과의 공유공간을 넓히며 개별을 넘어 공론적 건축 담론의 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지금껏 수없이 찾아 가고 불려(?) 다니던 행태가 머지않아 진정한 '실력'으로 그들 스스로가 건축문화의 큰 가치를 위해 우리를 찾아 올 기대도 해 본다.

작은 파장이 큰 울림이 되도록 기원 드린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화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여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다거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게다. 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 실행과 체험 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의식과 교육, 스스 로의 학습과 경험이 중요함은 자명하다.

'건축문화'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이미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유도하고 있고 교과서에까지 그를 다루고 있다 한다. 이에 어린 인재를 키 워 낼 교직 양성의 총책임자와 먼저 그에 대한 논의를 도모해 본다.

9월 6일 오후, 여름의 늦 자락에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서울교육대학교에 들어 박찬정 :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면담의 기회

주변도심의 번잡함이 교문을 들어서자 자연스레 사라지고 학생들의 웃음소리 와 얘기소리가 들리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너무 다정하다.

도심의 열린 그린 캠퍼스다.

저층 건물들이 조화롭게 서있고 그사이 녹지와 나무들이 시원하다. 중앙 운동장에서 보는 동그란 하늘은 가슴을 열리게 하고 평화롭다. 시간에 맞추어 총장실에 들어섰다.

인자한 선생님처럼 포근한 웃음과 넉넉한 목소리로 총장님께서 우리를 맞이하 였고 정갈한 총장집무실은 캠퍼스가 시야에 들어와 아늑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교직을 성직으로 여기며 후학의 교육에 매진해 오는 신항균 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교육대학교 총장님께서는 건축, 교육 등 전반에 탁월한 철학과 상식을 갖추 저는 대학 졸업 후 2년간 여중에서 수학 교육을 담당하였고, 1988년부터 우석 고 계셨고, 그 진솔한 이야기가 캠퍼스의 시원한 바람처럼 마음을 적셨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항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로써 처음이라 조심스럽고 긴장 됩니다.

박 : 최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고, 편하게 그냥 평소의 생각대로 말씀해 주 시면 됩니다. 간략한 학교 역사와 함께 총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

신 : 네. 해방 후 경기공립사범학교로부터 출발한 학교로 1946년부터 약 65년의

대학교에 재직하다가, 97년부터 현 서울 교육대학교로 부임해 지금까지 15년간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박 : 키도 크시고 건강해 뵈는데 직무 활동을 위한 건강관리, 혹은 취미 생활 지본주의 논리가 강해지면서 건축이 자꾸 부동산이나 하나의 구축물로써 인식하

신: 등산을 주로 하고, 아침 헬스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지인들과 골프도 하구요.

박 : 키나 체격으로 보면 로우 핸디캡퍼로 보이는데요.

신: 보통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반지들은 제가 잘 못 치 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웃음)

박 : 총장 취임에 따른 각오나 경영철학, 교육이념이 있으시면?

신: 저희 학교 교훈은 "내 힘으로, 한 마음으로"으로입니다. 또한 미래를 바라 보는 열린 생각, 인간을 생각하는 바른 교육이 우리 학교의 신념이고 목표입니 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에는 나름의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장은 이제 경영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저는 감성 경영을 중시합니다. 따뜻한 경영을 하려 합니다.

총장 선거 시의 모토도 모두가 행복하고 다 함께 발전하자는 것으로 하였습니 다. 서울교대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끔 밑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구만열 : 총장도 직접선거로 선출하죠?

신 : 네, 직접선거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1차 투표의 1, 2등이 다 시 2차 투표하는 방식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다행히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당선 되었습니다.

로 나타났네요.

신 : 감사합니다. 그 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일 처리를 해 왔는지를 구성원들이 기억해 주셨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선 거 운동은 잘 되지 않습니다.

박: 현 교육환경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 대응 방안은?

신 : 교직은 현실의 선호도보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성직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들의 단체나 노동조합 같은 것은 아직은 낯설은 감이 있어요. 직업적인 면에서 취직 이 잘 되는 측면이 부각됨으로서 그런 성직 같은 면이 약 화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교직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교육효과나 교육자로 서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박 : 건축사의 경우도 그런 공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 합니다.

는 경향이 되기 쉬운데 저희들도 환경이나 삶의 기반 등 보다 본질적인 측면이 되살아나도록 힘쓰곤 있습니만, 일반적으로 인식시키기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박: 현 캠퍼스의 공간 환경 평가, 혹은 아쉬운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 시는 것은?

신: 이 곳 서초동으로의 이사는, 77년이었고 근방은 허허벌판이었죠. 당초 캠퍼 스 건축설계는 김수근 선생님이 하셨는데, 교육대학이기에 가장 한국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벽돌이나 기와 등의 흑백 색조 등 한국적인 멋과 색깔을 잘 담아내어 당시 '건축작품상'도 받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지요. 지금은 거의 철거되었고, 학교 규모가 커짐에 따라 큰 그림 없이 재건축과 필요에 따른 개별 적인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살려내지 못한 게 참 아쉬 워요. 최근에 세워진 건축도 있으나 제가 보기엔 다소 부조화한 것 같아요.

박 : 설사 제한된 예산이나 환경이라 하더라도 좋은 건축, 환경을 만들겠다는 합의된 의지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결과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학생 들 인성교육에도 좋을 것 이구요. 하고나면 늘 아쉬울 때가 많지요.

구: 가 보신 캠퍼스 중 인상적인 곳을 들라면?

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시각이겠습니다만, 분 위가가 삭막하지 않고 건물들이 잘 조화된 것 같았습니다.

박 : 요즘 사회적으로 교직이 최고 인기인데, 그에 따른 학생들의 입학 행태, 의 식, 수업 태도 등의 변화는?

박 : 정말 결과가 총장님의 인기나 지지를 말해 주는군요. 15년간의 성과가 결과 💍 신 : 인기가 있는 것은 취직이 어려운 시기에 아무래도 취직이 용이하다는 것이 고, 그리고 요즈음은 월급 많이 받고 대우를 잘 받기보다 자기 시간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방학이 있고 출, 퇴근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안





정적인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교직 이전의 자기 철학 이나 신념 등은 늘 지켜야 할 기본인데… 학생들은 대체로 우수하고 의식도 건강 발: 네. 그 당시의 정황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하고 여유 없는 한 편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지요. 항상 교직으로서의 보람이나 가치를 잘 지켜나 갔으면 합니다.

그를 위해 모범적인 교직 생활이 되도록 교수들부터 조심합니다. '사제동행' 아무 래도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좋은 것은 배우고 부족한 것은 반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로 삼아 학생들이 유심히 보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익혀 나가도록 해야죠.

박 : 저학년 교직에 여성 비율이 압도적인 현상인데요.

신: 우리 학교도 한 쪽 성의 비율이 75%를 넘지 않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더라도 임용교사 시험 시는 남성 비율이 9% 내외로 낮지요. 심각합니다 🔀 : 제겐 어려운 질문이네요. (잠시 생각하시다가)얼마 전 어느 특집 프로에서 만 외국의 경우는 더 심해요. 남교사가 자기 학교에 배정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공무원 임용제에서는 양성 평등제를 기준으로 한 성의 경우 최 소 30% 이상이 되도록 유도 하죠. 교사 임용제에서도 양성 평등제를 적용하자 는 논의는 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가 있고, 여성표를 의식하여 적용되고 있 진 못 해요. 다른 분야에서는 역으로 여성 비율을 정한 쿼터제를 하고 있기도

구: 역사적으로 많은 외국 학교나 단체 등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인데, 현재 주 교류 내용과 행태는 어떤 것인지요?

신: 학술 교류, 교수 교환, 약 2주에서 1개월간의 단기 방학을 이용한 학습이나 관련 활동들, 교환 학생 교류 등등이죠. 다른 세계의 이해와 폭 넓은 문화 경험 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커 가도록 지원하고 유도하지요. 대학 4년 과정 중 한 학기 정도는 해외에서 수업을 받고 국내 봉사 활동은 물론, 해외봉사활동을 하 면서 세계인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입니다. 모든 행정도 전자기기로 처리하고 수업 역시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 든 동영상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외국의 유명 강사 강의도 들을 수 있도 👚 고 생각합니다만. 건축 관련 설계나 계획 업무를 주로 하시는 전문인으로 알고 록 울타리를 열 계획입니다. 세계 약 18개 대학과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요.

박 : 교직에 계시니 개념적이기는 하지만, 혹시 '건축'에 대해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신다면?

신 : 평소에 그리 깊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릴 때 어떤 드라마에서 건축사가 아파트 같은 것은 그리 설계할 의도는 없었는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

건축 직능이란 것이 그런 생계 수단만은 아닌 것 같은 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심하게 표현하면 흉물스럽 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반면 관광지에서 한옥의 멋 진 모습이나 주변과 잘 조 화된 휴양시설을 볼 때면 머물러 살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자연 스레 건축에 대한 눈이 떠지는 것 같습니다.

생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겠지요.

그래도 이젠 앞으로 본질을 제대로 보고 그런 구축물 뿐만 아니라, 공공환경이 나 경관 등 보다 포괄적인 환경의 개념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차

신 : 네, 그래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박: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바람직한 건축'이란 어떤 것일까요?

본 게 생각납니다.

예전 우리네 화장실, 해우소를 가지고 대상을 수상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인간의 배설물이 다시금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을 살려내는 생태적이고, 철학 적인 개념을 담았다고 해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구요. 그런 건축이 면 정말 바람직한 건축이 아닐까 합니다.

이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우리의 생활, 사회의 구성 등 전체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움직여지며 변해 가는가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건축 분야도 좀 더 활발히 그런 활동을 하셔서 일반인들이 보다 나은 건축적 이해를 한다면 좋은 건축 환경을 만드는데 바로 큰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 정말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셨네요.

구: 덧붙여 사회적 직능으로의 '건축사'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신: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건축사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다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시는 것 같고요. TV드라마에서 건축 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건축관계업을 하는 친구들로부터 자격증 따기가 무척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 : 네.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만. 아까 얘기되었다시피 건축이 보다 확대된 개 념이고 시대가 많이 변한만큼 저희들의 직능적인 변화도 불가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단지 개별 직업상의 업무만이 아닌 공공에 대한 책임을 대 신하는 역할이 있음을 이해하시고 총장님은 물론, 주변에 대해서도 건축에 대 한 개념, 이해의 폭이 달라지도록 힘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 : 지금 사시는 주거 형태는 무엇이며, 가족 구성과 관련하여 그 만족도는?

신: 아파트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도시 기능적인 것이나 건축 시설 적인 측면에서는 이젠 도시 생활의 보편한 형태로 볼 수 있겠지요. 만족도라는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의 가족도 대체로 그리 생각하는 편이구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사이의 자연스런 관계 증진이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

박: 평소에 건축·도시적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셨다면 어떤 것에 주목 하시는지요?

<mark>신</mark> : 네, 저는 교직에 오래 있다 보니 솔직히 구체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 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의, 식, 주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이고, 더구 나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 '주'에 대한 의식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수도권이나 서울에서의 집 문제를 들여다보면 과연 경제 성장과 함께 정 같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교대는 물론, 주변에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올바른 정책적인 연구와 수행이 잘 되어야 하겠 지만 우리 모두의 의식 전환, 먼저 사회지도층부 터의 공적 의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 는 아니겠죠. 가끔 방송이나 지상언론에서도 좋은 건축 사례를 보여 주어 저도 조금씩은 배우고 있 습니다만, 건축사 여러분들이 그래도 앞장서 사회 계도나 모범적 실천 사례를 알기 쉽게 많이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구: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 측면에 관심이 있으시 군요. 살아오신 주거나 환경, 건축물 중 감흥을 받 으신 적은?

신:5~6년 전, 미국 애리조나 주에 교환교수로 갈 때 가족회의에서 주거를 어디로 할까 논의하 였는데 모두 단독 주거를 원하였어요. 거긴 비교 적 주거 비용이 싸서 방이 4개, 응접 공간이 3곳,

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건축과 경쟁률이 높아진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 수영장까지 달린 집을 구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 위주의 생활 패턴 이어서 마당의 잔디도 함께 가꾸고 집 관리나 식사 등 온 식구가 같이 일하고 접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정말 가족 간이나 자연과의 교류가 풍부해져서 큰 행복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의 기억으로 퇴임 후 전원생활 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곤 하죠.

박: 국외의 건축 · 도시에서 좋은 느낌을 받으신 경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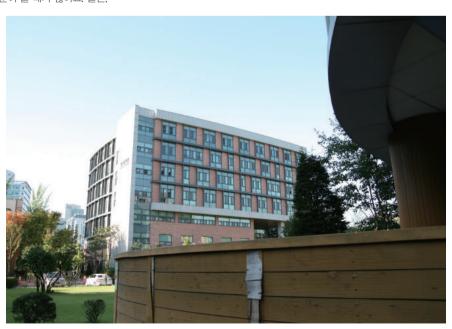
신: 주변 분들이 파리나 이태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저는 도시 생활을 많 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뉴욕 같은 도시 이미지, 빌딩 숲 사이의 좋은 공간에 서 살아 숨 쉬는 느낌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골의 전원, 고전적인 분위도 좋 으나 맨하탄의 계획된 정연한 느낌, 100여년 정도의 역사이지만 워싱턴 D.C에 서의 신, 구 건축물의 조화로움 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박 : 사람마다 다양한 게 당연하고 또 재미있지요. 사회적, 도시적인 좋은 공간 이나 환경에 보다 더 관심이 있으셔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학교내에서 건축 관련 경험이나 업무 등을 다루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십시오.

신 : 어느 학교에서나 유사한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만, 교수들은 자기의 독립된 공간에서 일하고 생활하다보니 자기 아집이 심한 분들이 왕왕 있어요. 혼자 생 활하는 버릇으로 인해 다른 몇 사람과 있으면 불편해 하기도 하고 어울려 공부 하는 것을 낯설어 하기도 해요.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박 : 좋은 사례네요. 건축설계 시 대체로 건축주로부터 최대의 건폐율이나 용적 률을 강요받아 사회적 배려나 공공 공간 등 남과 사회를 배려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은데, 이젠 그런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부여해 나가야 할 때인 것



신 : 당연히 그리하겠습니다.

박 : 건축·도시 분야. 건축사 업무, 에너지나 환경 분야 등에서 가장 불만족스 런 사항이 있으시면?

신: 제 스스로도 아직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뭐 합니다만, 우선은 에너지 절약, 환경 보존 등에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습관화가 되지 못 한 점이 아닌가 합니 이 도리겠지요! 다.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특히 공공시설이나 장소에서의 낭비나 훼손은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폭우 등 특별한 상황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대충하는 부실한 일 처 리죠. 죄송스럽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선 건축행위에 대한 신뢰가 적은 큰 경제적, 사회적인 가치로 인한 역설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같이 급격한 성장과 물질적인 힘에 따른 무한 경쟁, 속도지상주 의. 성과주의 같은 것이 더 심해 졌죠. 인간 세상이 어디나 비슷한 데가 많아 타 개발도상국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마음과 용기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럼, 보다 나은 사회 환경을 위해 우선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은?

신: 아무래도 올바른 정책과 의지, 그리고 그를 실행할 효과적 방안이 아닐까 한니다

꼭 가야 할 길이라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입안이나 제도 설정이 필요하 고, 또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꾸준히 헤쳐 나갈 온 사회 구성원들의 의 지,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적실한 방책이 있어야겠지요. 그것은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각자가 먼저 그리 해 나가는 게 사회의 주인이고 선진 시민 의식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진정한 친구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건축사님들도 먼 저 많은 사회 친구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박 : 돌릴 것도 없이, 솔직히 저희들도 뭔가를 부탁하거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경우가 많아 진정한 친구나 동료 의식이 약해진 게 아닌가 의심할 때도 많아요. 이런 자리도 짧지만 좋은 관계를 위한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 좀 전의 말씀 중에도 느껴졌습니다만, 먼저 의식적 관점이 높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문화의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평가하신다 면?

신: 사실 '건축문화의식'에 대한 개념이 잘 서 있지는 않습니다.

건축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나 사실상 좋은 건축을 만들려는 의식…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부동산이나 재화적인 인식이 여전하고, 외형 위주의 논의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사비가 얼마이고, 규모가 어떻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항이 먼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려니 하지만 크게 감동이 되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인 건축사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발휘해 주시고 여러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묵묵히 전문인의 길을 가는 의지와 힘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 절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 오히려 저희가 담아 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나 남 탓 할 때가 아니라 먼저 자기를 되돌아 봐야 하는 것

구: 전인적 교육자 양성이 주요 이념인 바. 문화 및 환경의식의 고양을 꾀 할 건축문화자산투어, 환경적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실 의향은?

편이라 할 수 있죠. 온갖 부정행위도 여전하고… 건축,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 : 확고한 프로그램으로서는 아직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준 비되어 공감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요. 저 부터라도 보다 학습 하고 이해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는 물론, 유아 교육, 중등학교 교사까지 양성하여 "교육 종합대학교"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 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원, 국제어학 교육원,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원격 교육연수원,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서의 **박** : 저도 부끄럽군요. 각자 자기부터 힘써 자기 직분과 기본을 지켜 나가려는 교육박물관을 만들어 민족 문화 유산의 자료 수집과 보존. 전시 등을 하려는 만 큼 그런 문화. 환경 의식의 고양의 의지가 있습니다.

> 서로 기회의 場을 열어 주어야 하고 전문 단체와의 협력이나 지원이 필요하니 장차 좋은 기획으로 제안해 주시지요.

> 박 : 덧붙여 이 곳 여건이 허락하시면 먼저 건축 · 환경의 융합, 소통, 창의를 위 한 특강 형식의 '건축아카데미'를 함께 개최해 보실 의향은?

> 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의 건축 환경을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고, 건축문화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필요 할 것 같습니 다. 추후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시지요.

> 박 :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많은 업무가 있으실 테니 그리 하도록 하겠습 니다. 기회가 된다면 개별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연락드리고 싶네요.

> 구: 앞으로는 건축물의 완성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잘 유지 관리 되어야 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면담 초기에 잠깐 언급되었지만, 현 캠퍼스의 관리 체계는 어 떤지요?

> $\frac{\mathbf{V}}{\mathbf{V}}$: 현재는 자체 관리 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ELEV.같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위탁을 하고요. 시대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되고 있으니 장차 예상 은 어렵네요.

> 박: 아마 곧 에너지절약 등급이나 성능 등급 같은 것이 보다 폭 넓게 시행되면 보다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신 :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근래 녹색산업이니, 그린 빌딩이니 하는 말들이 많지요. 혹시 '그린 캠퍼스' 신: 평소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분야라 서툴고 어색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에너지 절감 계획이나 환경성능평가, 혹은 자연에 오히려 그러한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는 느낌입니다. 잘 모르던 것을 조금이라 너지 활용 같은….

쓰는 추세이고 멋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녹색성장이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멋만 낼 수는 없겠지요. 아무래 출륭한 분들, 난관을 극복하고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듯이, 커져만 가는 효과, 도입할 가치나 의미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 제도, 공공기관과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캠퍼 할 것도 없겠지요. 양성 등을 구상 중입니다.

박 : 그렇군요, 초기 단계이나 공통 목표로 다 함께 하다 보면 신나고 보람될 것 같습니다.

구: 또 다른 측면의 그린 캠퍼스를 위한 실천 의사는?

용입니다.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함께 하는 것은 좋으나, 시설물 훼손이나 쓰레 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인들을 활용한다는 주체적 생각으로 스스로 행동반경을 기 방치 등 스스로 공간을 가꾸는 의식, 상대에의 배려심은 아직은 좀 부족한 ... 넓혀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는 늘 부족한 형편이지만 어렵게 진행시키고는 있습니다.

박: 선진적 시민의식을 위한 기회비용이고,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정말 고마우신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시니 이렇게 어려운 시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뷰에 대한 느낌과 함께 사회나 정부, 그리고 건축사에게 간 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시고 싶으신 것은?

도 접하고 알게 되면 뿌듯하듯이 말입니다.

문의하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주제넘은 얘기일 수도 있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신: 사실 아직은 활발하지는 못 해요. 요즈음 건물들에는 대부분 유리를 많이 않더군요. 끝이라고 하시니 그럼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얘기가 되 겠습니다만….

도 초기 투자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도 일반인들이 의지를 내고 실천하기 위 양극화. 편법이나 부정, 기득권이나 소위 가진 자들의 불공정 등의 사회적 병리 해서는 전문가분들이 앞장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경제나 활용 현상이 어느 쪽에서든지 개선되어 그것이 사회적 자본화가 되어 가면 좋겠다하 는 생각이구요. 먼저 도덕적, 전인적 인재를 길러 내야 할 교직 사회에서는 말

스 구축, 즉 교육 정보화 인프라 구축, 최첨단 교육 서비스, 정보 교육 전문가 정부는, 그런 신뢰 사회, 협동의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으 면 합니다. 투명한 게임의 룰이 사회 신뢰의 잣대가 될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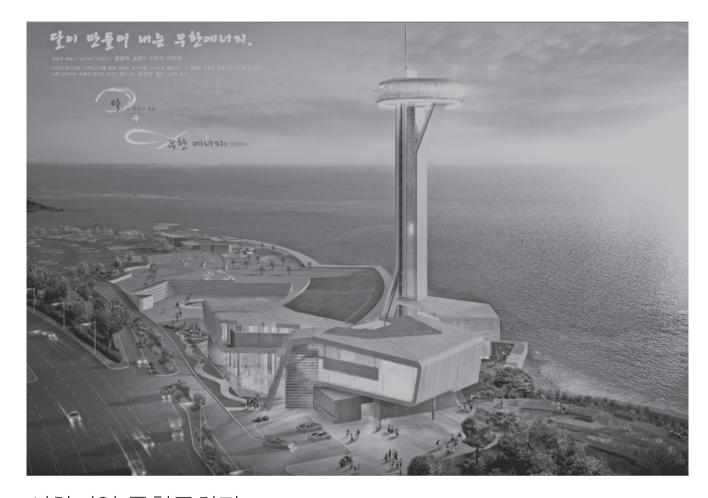
>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에서 일반화 될 수 있는 장,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체감이나 결집력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조직적 성찰의 결여나 집단주 의, 권리나 이익, 명예 등의 독점적 유혹 등이 일어나기 쉽죠. 사회의 변화를 보 면 그 기득권과 과보호를 스스로 깰 수 있는가가 어쩌면 사회적 스트레스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직업적 역사를 가진 건축사 여러분들도 점차 늘어나 <mark>신</mark> : 그린의 개념과는 다른 측면입니다만, 지역 사회에 캠퍼스 개방을 통한 활 고 복잡해지는 건축 관련 사항을 혼자 다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합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 학교 자체의 예산만으로 관리 운영하기에 그 동안 나름대로 잘 해 오시던 분들이리라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지는 않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자세한 말씀 주시어 큰 감사드립니다. 📛

· 인터뷰 및 정리 : 박찬정. 구만열



시화지역 통합문화관

Sihwa Unification Culture Center

당선작 _ 김상식 · 김용미 ^{정회원}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작은가리섬 시화

조력발전소 부지 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홍보관

대지면적 9,500㎡

건축면적 1,895.94m²

연 면 적 3,684.25㎡

건 폐 율 19.96%

용 적 률 34.60%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설계담당 조진홍, 김동진, 박민성, 김정진



본 현상 설계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와 지역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통합 문화관 건립계획으로, 시화방조제 중간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평탄한 대지가 제시되었다. 계획안은 세계 최대 규 모의 조력발전소로서의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역동적인 형태와,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다채롭게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시나리오 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형태적 상징성 : 달이 만들어 내는 무한의 에너지

조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달의 형상을 전망대의 모티브로 삼아 시화호를 밝히는 달(전망대)에서 비롯하는 조력의 무한한 에너지(통합문화관)라는 스토리텔링에서부터 형태 개념을 도출했다.

공간 시나리오 : 낙수 소리를 찾아가는 여정

섬 내에 입지하는 휴게소로부터 각각의 특징을 가진 연속적인 외부공간을 구성하여 바다와 함께하는 산책로를 구성했으며, 산책로의 정점인 낙수소리 정원에서 조력발전소를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소리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분동계획을 통한 전망대 활용의 극대화

영화상영관과 레스토랑, 전망대를 별동으로 구성하여 전시관 운영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별도 운영 및 관리에 유리하도록 계획하였다. 바다를 항해 열려있는 진입축을 중심으로 통합문화관은 조력발전소 내의 갤러리와 근접하게 배치하여 주도로에서의 정면성과 전시 동선의 효율성을 의도했으며, 동시에 전망대동은 바다에 가까이 접하도록 계획하였다.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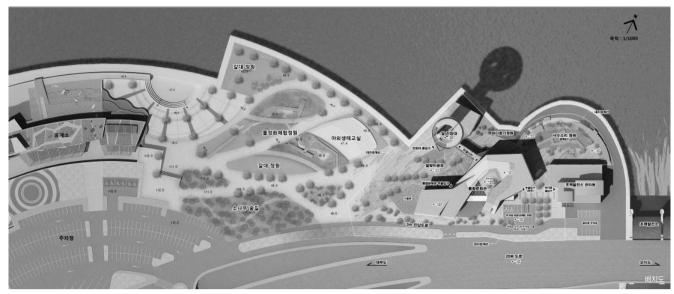
- · 작은가리섬 내의 휴게소로부터 바다와 조력발전소를 향해 열리는 진입축을 형성.
- \cdot 진입축을 중심으로 바다 측에 전망대동 및 편의 시설을 배치하여 바다를 향해 열린 휴게공간 조성
- · 도로 방향에 통합문화관을 배치하여 주도로에서의 정면성과 조력발전소와의 연계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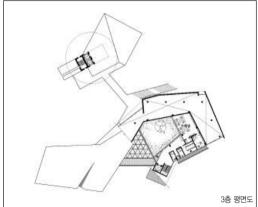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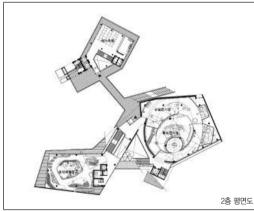
- · 1층: 홀을 중심으로 4D영상관 및 다목적 강당을 계획하여 각종 행사에 대응, 부출입구 계획을 통한 조력발전소 관리동과의 연계 및 기능별 동선 분리
- · 2층: 건축 형태와 함께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열린 공간으로 전시공간 계획
- · 3층: 남향으로 배치된 쾌적한 사무공간 및 외부 휴게공간 조성
- · 전망대: 중심에 코어를 두며 사방으로 열린 구조로 조망 조건 극대화, 저층부에 레스토랑,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야간 운영에 용이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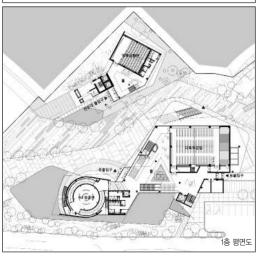
인명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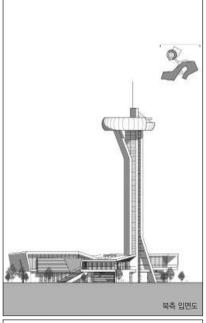
- · 주도로 방향에서는 강한 상징성을 가지며 보행진입방향에서는 바다를 향해 개방된 이중적 입면계획
- · 티타늄이연판, 목재, 돌, U-Glass 등 해풍에 견딜 수 있는 자연재료 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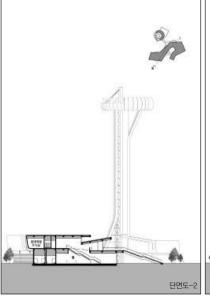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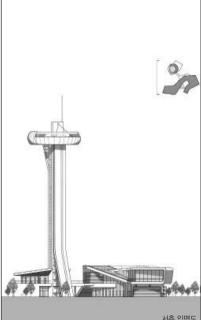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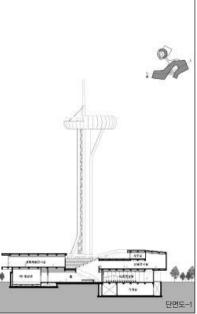














시화지역 통합문화관

Sihwa Unification Culture Center

가작 _ 함인선^{정회원}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작은가리섬 시화조력발전소 부지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홍보관

대지면적 9,500 m²

건축면적 1,767.71m²

연 면 적 3,626,65m²

건 폐 율 18.60%

용 적 률 24.10%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인구조, 철골조

설계담당 박윤호, 김서균, 심헌주, 홍선희, 신동원, 권기준, 김민중, 정은지

과거, 오염의 상징으로 아픔을 경험했던 시화호….

그 옛날 서해 해상교역의 중심이였던 반월만….

생명의 근원으로 일컷는 더넓은 서해 갯벌…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청푸른색의 바다로 새롭게 재탄생되어 우리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 해 주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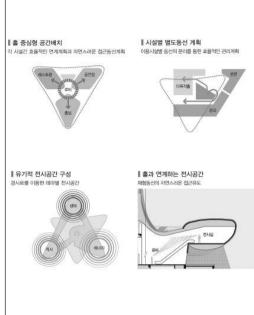
동심원으로 계획된 작은가리섬 부지내에 위치한 계획부지는 4면이 바다로 열려있고 인접하여 세계최대 규모의 조 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다. 부지내 건물주변으로 수공간을 계획하여 조력발전소의 청정에너지, 시화호의 재생, 그 리고 주변 바다와 어우러져 물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물의 공명과 유연한 흐름을 형상 화하여 지역의 새로운 중심으로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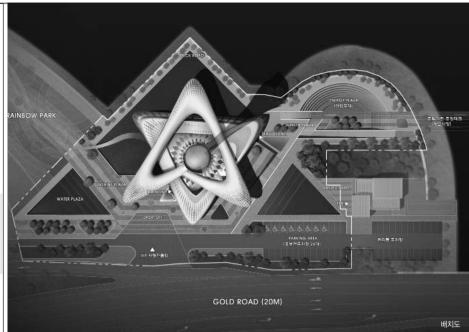
평면 계획

열린공간 계획으로 휴게소 및 관리동에서의 다양한 접근동선을 유도하고, 공연장을 오픈스테이지로 계획하여 다목적회 의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선큰의 활용으로 지하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로비에서 경사로를 활용하여 전시관으로 자연스러운 관람동선을 유도하여 홍보, 체험, 전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전망대를 최상층에 계획하여 360° 시화호 주변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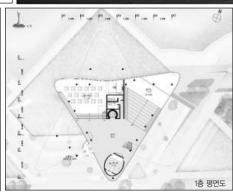
입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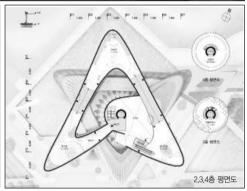
바람과 파도의 운동으로 형성되는 서해의 갯벌을 연상케 하는 유선형의 매스와 그 패턴을 적용하여 유기적이고 다이나 믹한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LED패널, Wind Turbine, BIPV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가로등이나 외부경관 요소, 미디어 월 등의 일부 전력수요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매스 선형을 따라 흐르는 빛과 시화호의 미래를 밝히는 전망대와 수변광장의 빛을 통해 인간과 자연, 기술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담고자 하였다. 崮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제주이전 사옥

GEPS(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Headquarter Office

당선작 _ 최기철 정회원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888번지 외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관녹지

(저촉)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9,560 m²

건축면적 4,681.27m²

연 면 적 14,969.77㎡

건 폐 율23.93%용 적 률49.31%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발 주 처 조달청

설계담당 토문건축_이수열, 박열, 고문영, 김재진, 김홍배, 황정운, 이진이, 신진호

해마건축_심미진, 김승은

제주혁신도시 '삼다시티'에 위치한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은 공단의 비상하는 새와 제주의 자연이 함께하는 「솟아오름」, 「감아오름」, 「어우름」의 3가지 흐름을 개념으로 계획했다.

「솟아오름,은 성산일출봉을 모티브로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의지를 표현하며, 「감아오름,은 제주의 풍요로운 곡선이 대지로부터 건물을 휘감아 올라 비상하는 공단의 정신을 상징한다. 또한 「어우름」은 제주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공단의 어울림을 통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실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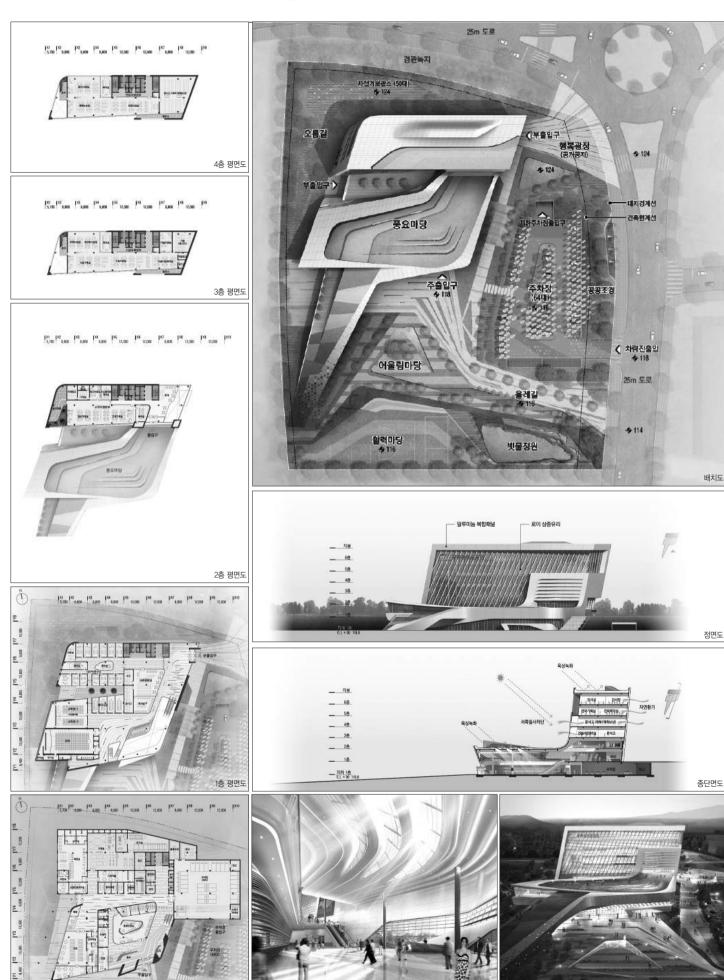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은 '경사지', '바람', '항과 조망', 그리고 혁신도시의 '녹지축'이라는 대지의 주요한 4가지 특성을 매스와 배치계획에 반영했다.

도시와 공원을 대지 내로 끌어들여 다양한 외부공간을 기능과 위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경사진 대지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러한 접근은 입체적 로비, 홀 계획을 통하여 통합된다. 또한, 전면진입광 장을 통해 외부에 개방성을 가짐과 동시에 옥상정원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프로그램조닝은 보안을 고려하여 포디움과 상층부로 구분하여 계획했다. 포디움은 대민, 교육시설, 복리시설 등 업무지원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는 순수업무공간으로 구성된다. 집중코이를 사용하여 최대한의 업무공간을 확보 함과 동시에 옥상정원과 테라스를 가진 휴게공간을 계획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신사옥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한 건물로서, 창면적비 50%미만 적용을 통한 건물 단열성능 강화, 구조와 차양, 냉각, 환기시스템이 통합된 지능형 외피, 자연환기 및 휴게를 위한 에코샤프트, 복사 열부하 감소를 위한 옥상녹화를 적용했다. 또한, 태양에너지와 지열냉난방시스템, 우수를 재활용한 수순환시스템 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을 이용하여 미래지향적 공단이 되도록 계획했다. 圖





지하 1층 평면도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제주이전 사옥

GEPS(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Headquarter Office

우수작 _ 이승연 ^{정회원} (주)원양 건축사사무소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888번지(혁신 도시 이전6부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사무실

대지면적 19.560 m²

건축면적 3,890.10m²

연 면 적 15,194,36㎡

건 폐 율 19.89%

용 적 률 52,57%

묘 지하 2층, 지상 6층

설계담당 원양건축_장명석, 박동국, 염창선, 김지혁,

이종용, 장내임

유선건축 이숙경, 정원정, 안기웅, 유길선

대지는 지구의 남북녹지체계와 인접해 있고 상징가로와 커뮤니티 가로의 교차점인 혁신지구의 중심에 위치하여 제주혁신지구의 그린코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지분석을 종합하여 공원 속 또 하나의 공원이 되고, 근린공원과 상업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수려한 자연 경관을 담는 열린 사옥을 제시한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첫째, 상징적인 사옥으로써 새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기 위해 건물은 대지에서 들어 올린다.

둘째.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으로 근린공원과 연계하고 커뮤니티가로에 대응하여 주변과 소통한다. 셋째, Green tube의 친환경 중정을 계획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한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들어올린 매스 하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넓은 의미의 공원이 된다. 북측 상업시설과 남서측 공원을 연계 한 외부동선을 계획하여 공원이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

대지 북측의 커뮤니티가로에서 건물을 이격 배치하고 늘푸른광장, 마르공연장, 옥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한다. 이 버퍼 공간은 사옥에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걷고 싶은 가로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레벨차를 이용해 조성된 다양한 광장은 차량진입이 이루어지는 주출입구 영역과 보행을 위한 공원측 영역으로 나 누어 도시와 소통하는 광장이 될 것이다.

영역별 특성에 맞춰 매스를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고, 업무시설 영역과 업무지원시설 영역이 다르게 배치한다. 먼저, 상층부에는 직원 전용의 업무영역을 배치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저층부에는 민원 인들과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민원센터와 복리후생시설을 배치한다.

사옥의 전체적인 형태는 공단 CI의 비상하는 새를 형상화 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제주석과 송이석 등을 친 환경 마감재료를 사용했다.

남측입면에는 바다 조망을 위해 프레임을 최소화 하고 BIPV 등을 적용하고 북측입면은 창면적을 최소화 했으며 다양한 마감재료를 사용하여 커뮤니티가로변으로 활력있는 입면이 될 것이다.

에너지 세이빙 실현을 위해 패시브 디자인과 엑티브 디자인을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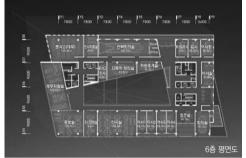
필로티와 중정을 설치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하며 모든 실에서 자연광의 유입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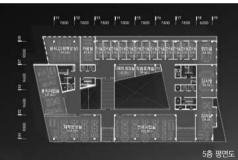
서향 차단을 위한 수직루버, 이중외피, 고단열 외피 등과 태양열발전, 태양광전지, 광선반, 빙축열 시스템 등을 적 용했다.

중정은 기류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크기로 계획했다. 이 중정에는 건물 내외부 바람의 압력차에 의해 베르 누이 효과가 발생했고 이는 실내 자연환기성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더블스킨 역할의 아뜨리움을 설치하여 에너지 세이빙을 실현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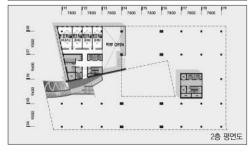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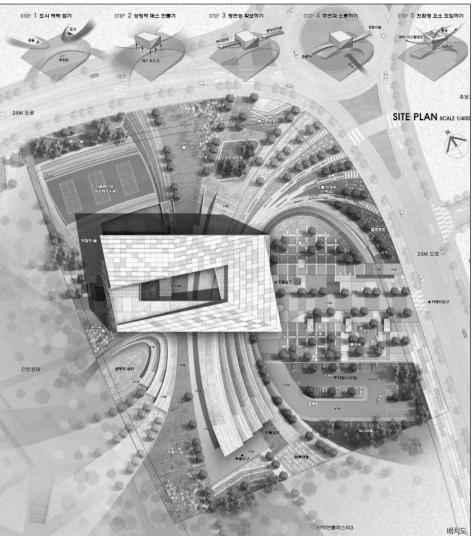






















상근이사의 에필로그(Epilogue)

Fulltime Board of Director's Epilogue

2년간의 법제위원장을 거쳐 이사가 되었고 이사 6개월 만에 상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4년의 상근기간을 마치고 이제야 양 어깨의 짐을 덜게 되었다. 도합 6년 반을 협회의 법제 활동을 하였으나 법제도 활동과정에서 아쉬웠고 어려웠던 모습들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는다. 아쉬움의 문제점들은 반복되지 말아야 하며 어려움의 해결과정은전달되어야 하기에 필자 근무기간 중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Epilogue 1. 건축문화진흥법과 건축기본법

우연한 기회로 황우여 의원의 건축 관련 자문 중에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안을 우리 협회와 협의하여 만들었더니 한 달 만에 의원 입법발의와 협회 주관의 국회공청회까지 일사천리다. 그러나 입법(안)에 당시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는 바람에 건설교통부에 지진을 일으킨다.



필자: 전영철, (주)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by Jeon, Young-cheol, KIRA 주무장관이 드러나지 않았던 공청회에서는 건설교통부도 문화관광부도, 여당도 야당도 대찬성이었던 법률안이 1년여 표류하게 되고 건설교통부는 건설 및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와 함께 건축기본법(안)을 대안 법으로 대응한다. 정부 부처내의 역학관계를 알지 못했던 우리협회의 무지로 인하여 건축문화진흥법은 사장되고 만다. 통과확률10%도 못 될 것이라는 입법관계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건축기본법을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법안이 가지는 정부 부처 간의 역학관계를 모르는 입법추진은 절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Epilogue 2, 건축사 공제 관련 건축사법 개정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속에 금융보증업무의 추가와 손해배상가 입의 의무규정이 법안변경의 핵심이었다. 금융위원회의 반대와 보증 보험사의 반대에 부딪혀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법안이 법사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보류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지역회장들 과 회장단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설득한 노력과 인내의 결과였다.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의 어려움을 느낀 법 개정이었으며 지역회장들 을 비롯한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의 힘을 보여준 경우였다. 어 렵게 통과시킨 법률이니만큼 공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숙제는 우리 협회 임직원 및 회원 모두의 몫이다.

Epilogue 3. 건축의 날 포상 확대

제3회 건축의 날(2007년)은 우리협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으며 총 괄하였다. 장관표창만 있던 건축의 날 포상을 당시 직전회장이었던 이철호 고문과 당시 회장이었던 한명수 고문의 적극적인 의지와 도 움으로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 각각 3개씩을 추가할 수 있었다. 당시 행정안전부 포상 담당자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5회부터는 훈, 포장을 추가시키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7회째를 맞 는 아직까지 훈, 포장은 추가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건축계 모두의 숙제다.

Epilogue 4.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10년째 인상되지 않았던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은 물가인상의 반영. 친환경과 에너지인증 등을 위한 추가설계업무, BIM을 위한 추가업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변경되지 않고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정책포럼에서 "건축설계시장의 현황과 발주제도 등 개선방안"이라는 우리 협회의 주제발표가 계기가 되어 우리협회와 주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사업무대가기준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주하였다. 그리고 건축학회의 연구보고서는 최종 공청회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중이다. 짧은 연구기간으

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건축사업무 대가기준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건축계는 대가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공공발주의 대가를 바탕으로 민간발주부분의 대가기준도 정상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연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늪의 바닥까지 가라앉은 건축사업무대가의 현실화는 빈사상태의 건축계를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pilogue 5. 건축사 등록원

건축사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법사위원회는 법제처가 승인한 부칙 내용,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건축사등록 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확정하였다. 5년여의 긴 여정 속에서 건축사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민감했던 건축사등록업무와 실무수련자 등록업무가 건축사협회의 업무로 결론지어졌다. 건축사 등록원으로 이름 지어졌던 등록업무는 건축단체 통합 논의의 계기가 되었고 정부에서도 업무의 중요도로 보아 별도의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기를 원했었다. 2012년 5월31일부터 시작되는 건축사 등록원업무는 치밀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사들과 모든 5년제 건축학과 졸업생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건축사협회의 의 식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대한건축사협회의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이다.

Epilogue 6, 오피스텔, 건축신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제도변화

오피스텔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하여 우리협회는 연구과제를 발 주하였고 온돌면적과 화장실 규제 등의 제도개혁을 가져왔다. 건축신 고제도는 그 대상을 축소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만을 제출하던 도서의 양을 늘려 건축사와 같은 전문가의 설계를 통하여 시공과정에서 국민 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 우 30세대 미만의 건축허가대상이 30세대 이상인 사업승인 대상의 주차장 기준보다 강화된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였다. 이는 연구와 올바른 논리개발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이다. 연구를 통한 논리 개발은 우리협회의 부족한 예산 속에서도 아끼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Epilogue 7. 구조안전, 석면안전, 지적재산권 등 건축사의 영역 및 권리화보

구조계획은 분명한 건축설계의 일부이다. 건축구조는 5년제 건축 학과의 수업과정에서는 물론 실무에서도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계산은 전문화된 구조기술사나 건축사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구조의 본질이 설계과정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석면안전관리법이 통과되면서 준비 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속에 석면조사, 감리 등의 방향이 우리 협회의견대로 진행되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건축사의 영역과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광고에 사용된 건축물 저작권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여 승리한 당시 회장이었던 한명수 고문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송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계약서를 수정시킨 최영집 고문과 같은 강한 지도자로서의 결단과 의지도 필요하다.

Epilogue 8. 건축법령 실무해설시리즈 등 전문서적의 활성화

2011년 2월에 우리협회는 창립 46년 만에 처음으로 건축법령 실무해설시리즈를 출판하였다. 건축법해설집, 건축법령집, 건축법판례집, 건축법 질의회신집 4권 1세트로 구성된 서적은 전국의 건축사들과 공무원들에게 인기리에 보급되었다. 이는 최소한 2년에 한번이라도 보완, 발행하여 발전시키고 건축법관련 최고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외에 3년째를 맞이하는 건축 작품집을 비롯하여 건축학교육에 필요한 건축실무 등의 교과서제작에도 관심을 가져 가장 큰 건축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해야한다.

Epilogue 9. 건축서비스진흥법, 유지관리법, 녹색건축물 조성법 등 추진법안

지금 건축계가 추진 중인 핵심적인 건축관련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 녹색건축물 조성법(제정), 건축물 유지관리법(건축법개 정), 건축기본법(개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국가건축정책위 원회와 건축관련단체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건축계가 오 랫동안 숙제로 삼았던 모든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 진 흥법이다. 녹색건축물조성법은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법안으로서 건축물의 녹색화, 인증, 관리 등을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내는 법안이다.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법개정안은 기존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협회가 추진하는 법안이다. 건축기본법 개정안은 김 진애의원이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 속의 "건축"이라는 용어를 "건축과 관련분야"로 변경하며 관련분야에 조경, 토목, 도시, 설비 등을 포함하여 건축과 더불어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다. 이곳에 나열된 모든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실행되기를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계 모두가 동료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야 하며 조직력과 집행력이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장 큰 몫을 해야 할것이다.

Epilogue 10. 건축사협회와 건축계를 위하여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건축사협회를 건 축계의 큰 기둥으로 인정하고 있어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 정부 와 건축계에서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우리가 해 야 될 몫은 더욱 커진다. 대한건축학회는 학술단체로서 별도의 역할 이 주어지므로 학회를 제외한 다른 건축관련 단체들과의 모임에서는 건축사협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기 에 지금까지는 우리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이제는 건축계를 위 하여 노력해야 한다. 건축계가 건축사협회를 구심점으로 모이기에 결 국은 건축사협회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만을 위한 활동이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축사협 회가 건축계의 큰 바위 얼굴이 되도록 활동하고 노력해야 한다. 건축 사협회만을 위한 활동과 발언들은 우리 협회를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오해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건축사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건축계를 건축사협회만으로 떼어놓고자 노력하는 것과도 같다. 당연히 협회는 회원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건축사가 되고 자 하는 예비건축사들도 품어야 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품어 야 한다. 그들을 한 식구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건축사들의 권익을 지 키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회원을 위하고 건축사를 위해서 이제는 큰마음과 넓은 가슴으로 건축계 전체를 포용할 때이다.固

변화하는 건축

Changes in Architecture

필자: 윤기병,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Yoon, Ki-byung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아리조나대학과 호주 시드니대 학을 졸업하였다. 삼희도시건축과 주택공사 주택연구소에 근무하였다. 현재 건축계 동향을 전하는 블로그 ABRIEF (http://www.abrief.net)와 지속가능한 사회에서의 공간환 경 문제를 다루는 블로그 SUSTAIN(http://www.sustain. or.kr)을 운영하고 있다. 목 ㅊ

- 1. 변화하는 건축 실무 환경 Changes in Architectural Practice
- 2. 지속가능성에 따른 건축의 변화 Sustainabilit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 3. 기술에 따른 건축의 변화 Technolog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 4. 새로이 출현하는 아이디어 들 Emerging Ideas in Architecture

변화한다는 사실 이외에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우리 건축사들의 어려움은 여느 때 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전 세계적 공통의 현실이다. 이는 건축사들이 처한 외적 시장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불황이 아닌 환경의 변화이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 시장 진출이 모색되고 있으며,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사무소 규모의 경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의 필요성과 브랜드확보가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건축설계 이외의 디자인 시장

으로의 진출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속적 건축사의 영역에 대한 잠식과 함께 건축사 능력에 대한 회의가일어나고 있다. 젊은 건축사들은 건축사의 핵심 능력이 과연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래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생존을 위한 건축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2.지속가능성에 따른 건축의 변화

2. Sustainability and Changes in Architecture

건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함이 지나침이 없다. 국 제건축가연맹인 UIA의 역할 중 가장 으뜸으로 삼은 것이 지속가능한 건축의 실현이다. 즉,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축 공간환경 구축을 포함하여 재생에너지의 사용 문제를 핵심적 주제로 삼고 있다. 사회 적으로도 지구환경의 문제와 함께 고갈 되어가는 화석 연료의 문제에 대한 극복,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의 강화는 건축 산업의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거축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건축에서의 지속가능성은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기본이 친환경 건축이다. 에너지 절약으로부터 시작하여 물의 절감, 건물의 재료와 제품의 적정화된 사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을 이야기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자원의 보호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건축과 관련하여 자재 등과 시공의 비용뿐만 아니라 건물의 폐기과정을 포함한 생애주기의 문제를 포함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인간의 건강, 커뮤니티의 보호와 함께 적정한 공간환경의 안락의 문제를 포함하며, 조명과 방음, 무장애 공간, 미적인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건축에서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과거 건축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으로의 변화이다. 즉, 건물의 지속가능성 요소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 평가하고 고려하여, 고성능 건물을 전 생애주기 동안 이룰 수 있도록 하도록 하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는 실무로의 변화이다.

건축의 중요성과 시장

지속가능성은 모든 산업의 근본적 이슈이다. IT업계는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 절약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중요 원인 중 하나는 SUV 등에 대한 치중에 의한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자동차에 비하여 낮은 연비가 원인 중 하나이다. 즉, 기능을 중시하였으나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성을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건축업계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아 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건축이 중요시 되는 원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은 에너지 소비의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의 40%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30%를 배출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건설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 건축에서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 생산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철강재및 유리 등 건축자재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도 무시 못할 양이된다. 즉, 건축 산업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50%에육박한다고 추정되며, 이는 역으로 건축부문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없이 지구 기후변화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때문이다.

건축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사회활동을 담는 환경 자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에 있어서도 1/3을 담당하고 있는 운송은 운송기기들의 효율성 못지 않게 건축과 도시 등 공간환경의 구조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은 이를 담을 수 있는 주거 및 도시 환경의 구축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변화

친환경 건축의 구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간환경을 만들어 나아가지 않을 경우, 기후 변화의 가속화와 바람직한 사회로의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 문제와 화석연료의 한계상황으로 인한 친환경 건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는 건축을 비롯한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축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 건물을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새로운 녹색기술과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직장 창출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건

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친환경화에 초점이 변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기존건물의 친환경화를 위한 개보수는 적은 자본으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자원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수자원 절약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에서의 수자원 절약과 우수활용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수자원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태양에너지 사용 건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설계나 기술의 문제를 넘어 금융권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제 친환경 건물에 대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주거 부문과 오피스 부문뿐만 아니라 기타 상업 부문에서의 친환경 건축의 확산과 함께 운영의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매우 자주 이야기가 되고 있는 현재에 도 요구조건과 관련된 생각은 아직 건축분야에서 불확실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건축의 핵심적 요구조건이며 이제 건축사들이 상세한 해결책 마련에 매진하여야 한다. 최소한 건축에서 종합적접근방식에 의한 건물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엔지니어는 단편적인 문제 해결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 건축의 경우에도 단편적 문제 해결 능력이 건축사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건축사는 종합적 능력을 자랑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사회는 이와 같은 변화를 필요로하고 있으며, 건축가는 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충족시켜야 하는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

생각의 변화

가장 중요한 생각은 건축사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첫 번째 생각이 변화로 건축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간환경 창조자의 역할로 스스로 생각하여야 한다. 이는 현재 건물 설계를 하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의 변화이며, 과거 건축사들이 행하여 왔던 업무 영역으로의 복귀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지속가능한 공간환경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하며, 이를 창조하기 위한 공간 DNA의 설계자의 역할을 자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가는 친환경 건축물설계뿐만 아니라, 개보수를 통한 자원 절약과 공간의 재창조, 친환경 사회를 위한 도시 및 조경설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할과 포용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친환경 건축 설계를 포함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건축가에게 새로운 어려움이 아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많은 경우 아직 건축에서의 친환경적문제 해결을 기존 업무와 별개의 추가적 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친환경 건축에 대한 요구는 이제 사회적 수요이며, 건축가는 이 수요에 맞추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축가의 생존과 함께 수익으로 연결될 것으로 낙관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속가능성은 건축사에게 전문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친환경 건축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전문가의 협동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과거 건축사는 이들 전문성을 다른 전문가에게 맡겨 왔으며, 이에 따른 건축가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어 왔다.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건축사 스스로가 전문성을 지닌 집단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건축은 여러 엔지니어링 분야에 의한 시장 잠식을 당하여 왔으며, 친환경 건축은 더욱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 등장하고 있는 전문성을 건축사 스스로가 외면하여 전문성을 지닌 건축사들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건축가를 위한 시장은 더욱 축소될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태도의 변화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트렌드이다. 무엇보다 건축사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친환경 건축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간창조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그 중심에 건축사의 역할이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건축사 자신이 솔선수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친환경 건축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사무소 환경을 가장 친환경적 모델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속가능한 행동의 모범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건축사는 친환경적 스타일과 패션, 그리고 사무소 운영과 행동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모델 창조에 각자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시 되는 변화는 건축사의 업무수행 태도의 변화이다.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전문성을 어우르는 건축가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즉, 과거 모든 것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절대적 권위의 입장으로부터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실행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다양한 전문가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

여 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건축사는 의사 결정자의 입장으로부터 의견 조정자의 역할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결론

능력의 변화

친환경 건축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창조에는 다양한 새로운 능력을 필요로 한다. 기존 실무와는 변화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트렌드에 맞추어 친환경 건축설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친환경 건축설계는 건축사모두가 하여야 하는 전문성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을 하지 못하는 건축사는 건축사로써의 자격이 없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CAD가 이제 건축 실무에서 별도의 의미를 지니지않은 것과 같이 친환경 건축이라는 말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져 가는 상황이다. 친환경 건축설계는 건축가 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과 건축과 보수교육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환경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건축사는 사회적 소통 능력에 대한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건축사는 멋진 건물을 설계하고 짓고 싶어할지 모르나 고객은 건축을 통한 삶의 성취를, 그리고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사는 이와 같은 고객과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실현하고 자 하는 이상과 능력이 있음을 소통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건축사가 지은 건물이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가를 과시하던 태도로부터의 변화이 다.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의 전문가로써의 사회적 소통을 하지 못할 경 전 세계적으로 건축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과거 건축사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왔던 시장의 붕괴가 원인이다. 이 시장의 회복이 아직 가시화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지속가능성 시장이다. 지구환경 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건축과 공간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 건축사의 미래는 그리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즉, 친환경 건축으로의 혁신 없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공간환경 구현 없이 보다 낳은 사회의 구현은 어렵다. 이와 같은 시장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를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건축사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친환경 건축은 엔지니어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즉, 친환경 건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단편적으로 건축에 접목되어 시행되어가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구현을 위하여 도시계획가와 조경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이미 도시 구조의 변화를 통한 환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조경가들은 지구를 하나의 생태계의 관점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그 안에 도시, 그리고 도시 안에 건물이 있다는 개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고자 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건축사는 우리의 전문성이 건축물 설계이며, 친환경 건축은 다른 전문가가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장이 축소된다고 한탄할 것인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시장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할 때이다. **固**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The cultural marketing and role of lighting

필자: 방선주, 숭실대학교 실내디자인 석사, 2008하이서울페스티벌 겨울축제 기획연구원,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조명위원회 위원, 현도시와 환경 선임연구원

by Bang, Seon-joo



2004년 한국항공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2011년 숭실 대학교에서 실내디자인 석사학위를 받았다. 하이서울 페스티벌 겨울빛축제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에서 경 험을 쌓은 후 현재 도시와 환경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공간환경디자인학회 조명위원회 위 원,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 기초조형학회 정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 차		
1. 문화마케팅과 조명의 역할	손장복	동양대 교수
2. 미디어 파사드-건축과 조명의만남	방선주	숭실대 석사
3. 도시 공공디자인과 빛환경	김국선	김포대 교수
4. 도심 보행자중심가로의		
시퀀스 경관과 경관조명 연출	이지은	홍익대 석사
5. 조명디자인과 컬러	서혜옥	중앙대 교수
6. 도시 빛환경과 조형성	김영진	이화여대 석사

최근 건축 파사드는 예술과 접목이 되어 미디어 아트 또는 디지털 아트의 거대한 Display Canvas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되는 도시단위 이벤트의 추세와 고층건물의 경쟁적 건립 추진 사업으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전망 또한 밝게 나오고 있다.

본 연재는 국내에서의 미디어 파사드의 효과와 법적 규제에 관한 내용,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미디어파사드 조명 설치 방식의 장, 단점 을 통해 미디어파사드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이울러 이러한 설치방식을 적용한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시 고려되

어야하는 항목들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건축과 조명의 융합이라는 현상을 다룰 예정이다.

도시공간의 미디어파사드 연출은 기존의 건축물 혹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강력하고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며,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맞추어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명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에서의 미디어파사드 에 대한 전반적 고찰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국내의 현실 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한다.

2.미디어 파사드 - 건축과 조명의 만남

2. Media facade-Harmony of Architecture and Lighting

디자인에서는 그 대상에 따라 여러 분야의 협업이 이뤄지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 영역도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건축·조명·디지털미디어·정보기술(IT) 등 여러 분야가 접목된 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가 21세기 건축 예술, 더 나아가 산업기술과 예술이 접목된 하나의 새로운 예술분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미디어파사드란 매체(media)와 파사드(façade, 건물 전면)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에 LED등의 조명을 설치해 건물 전체를 하나의 대형디스플레이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건물외벽이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사용된다. 건물전면부에 조명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며 디지털 미디어의형식을 빌려 동적인 그래픽, 텍스트, 이미지 영상까지 표출이 가능한조명방식이다. 주간에는 건물이 가진 고유의 형태에 의한 디자인이부각이 되며, 야간에는 빛을 통하여 건축물에 색상을 입힘으로써, 고정성이 강한 건축물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건축물 자체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시각 및 공간 예술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건축 파사드는 예술과 접목이 되어 미디어 아트 또는 디지털 아트의 거대한 Display Canvas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대형화되는 도시단위 이벤트의 추세와 고층건물의 경쟁적 건립 추진사업으로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전망 또한 밝게 나오고 있다.

파리의 에펠탑과 서울의 63빌딩이 그러하듯 고층건물이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에, 건축물 파사드에 LED 조명의 적용은 랜드마크를 뛰어 넘어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기억되는 예술의 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도입된 것을 시초로 현재는 도심 곳곳에 영상 예술을 활용한 건물 외관조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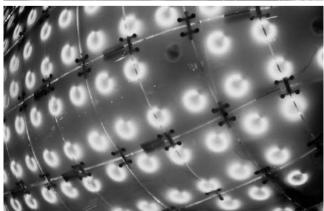


LAS.E.R. Tag, 01=

미디어파사드를 이용한 건물은 외벽에 조명을 이용하여 주변 건물들에 비해 차별화된 외관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지역적 랜드마크로서 보다 주목 받게 함으로써, 광고효과와 동반되는 건물자체의 인지도 상승과 이에 따른 상업적 ·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 더불어 건물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질적 가치의 향상과 이로 인한 관광산업의 효과 등 그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공간에서 미디어파사드를 통한 조명연출은 도시의 모습들을 선택적으로 보여주어 주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를 부 각시켜 도시를 매력적인 모습으로 재탄생시킨다. 낮 동안의 삭막했던 도시를 색색의 조명 연출로 감성을 자극하여 사람들의 시각을 즐겁게 해주고 야간의 도시공간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심미적인 접 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파사드 등의 예술적 조명 연출을 통해 오늘날 도시 조명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오늘날 조명은





그라츠 쿤스트하우스, 오스트리아



Dexia 타워, 벨기에

더 이상 단순히 어둠을 밝혀 시야를 확보하고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에 조명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야간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를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도시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도시의 관 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 다.

21세기인 현 시점에서 조망해 볼 때 빛은 초기 안정, 어두움을 밝힘 등의 기능적인 목적에서 부터 발전하고 변화하여, 빛을 장식의 차원으로까지 이용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건축적 표현양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현재의 조명은 발광다이오드(LED), 플라즈마 디스플레이(PDP), 액정 디스플레이(LCD),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 다양한 전자소재들이 광원으로 등장하며 전기조명시대에서 전자조명시대, 디지털 조명시대로 접어드는 경계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파사드 조명 방식에는 점멸 방식의 고정식 설치방식 과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유동식 설치방식이 있는데, 최근까지는 주로 밝기 이외의 상태의 변화 없이 주로 조명의 점멸 기능만을 사용하는 고정식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왔다. 이러한 고정식은 한번 설치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단점이 있지만 조명의 점멸 기능에만 의존하게 되므로 콘텐츠 자체가 다소 단조로운 면이 있으며, 일반 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정식은 건물의 야간점등과 같이 건축의 일부로서의 조명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유동식은 광원을 이용한 미디어아트로서의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융합디자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조명은 기존의 단순히 켜고 끄는 기능에 만족하지 않고 제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기능의 발현, 발전과 활용분야가 점차확대된 조명 방식으로, 최근에는 LED 또는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

는 유동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디어파사드는 이러한 디지털 조명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로서 일반 조명에 비해 대체로 전력 효율이 우수한 면이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단순한 건물의 조명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듯 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를 보는 것에서 야기될 수 있는 식상함을 주지 않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 구입에 해야 하는 비용적 제약조건이 있다.

미디어파사드 디자인 시 고려 사항으로는 크게 유지·관리, 콘텐츠, 제품의 영역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지·관리는 운영업체 혹은 건물관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장발생 시 신속한 교체와 수리가용이하도록 제반조건이 확보되어야한다. 콘텐츠는 미디어 작가에 연관되는 것으로 미디어파사드의 연중 가동 시 지속적인 양질의 미디어콘텐츠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물이 지향하는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작가 그룹의 선정과프로그램의 관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명제품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제작 및 설치 업체이다. 낮 시간대의 조명 소등 시 건물과 미디어파사드의 설치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지 않고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설치상의 고려점이 있다.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특성상 조명제품의 방수, 자연광으로부터 내구성이 뛰어나 외부환경에 대하여 충분한 수명을 제공할수 있는 제품 선정과 외부 기후환경에 대한 광원의 수명이 보장되어야한다.

미디어파사드는 그 자체가 예술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상품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관광산업은 그 부가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가능성을 가진 산업분야다. 최근 들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 리옹의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첫 번째로 유네스코의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도시이자 미디어아트 분야의 유일한 창의도시인 리옹은 현재 전 세계 미디어아트의 중심지로서 타 미디어아트 도시들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리옹은 특히 공공부문 예산 20%를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문화 분야에 할당하고 있는 등 미디어아트를 리옹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의 관광산업은 아직도 팔수 있는 관광상품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의 가장 긍정적인 면은 바로 역동적인 이미지와 IT'장국으로서의 이미지이다. 따라서 미디어 파사드야 말로 이러한 우리의 장점들을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



무어필드 안과병원, 영국

운 예술 분야이자 산업 분야라고 하겠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1월 27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미디어 파사드는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23시에는 소등해야 한다. 영상 연출시간은 시간당 10분 이내여야 하며 단, 야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의 미디어 파사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행인과 차량 운전자에 미치는 교란 효과 때문에 상업적인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파사드를 단순한 경관조명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것으로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작품성 등 예술적인 측 면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미디어파사드를 바라보 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미디어파사드를 단순한 경관조명 으로 보는 시각과 아트 즉, 예술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외형적인 설치방식으로 보자면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경관조명의일부에 미디어파사드가 속한다. 반면 내용적으로 본다면 단순 빛의 연출인 경관조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예술적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공간 예술의 한 분야라고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미디어파사드와 관련한 법적 규제 기준을 경관조명의 시각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예술작품의 미디어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미디어파사드가 담당하는 역할 은 어느 한쪽의 영역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 경관조명과 예술. 이 둘 이 합쳐진 양쪽 모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규제 역시 미디어 콘텐츠의 아트로서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는 빛의 공해에 살아온 면이 없지 않다. 어지러운 네온사인과 무분별한 조명은 우리에게 빛이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게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기여를 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문화 마케팅적인 측면, 더 나아가 관광 자원의 개발의 측면에서 사회적인 규제보다는 실험적인 시도들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이다.

미디어파사드는 건축을 넘어 도시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이해되어 야하는 부분으로 문화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도시가 예술적 디자인조명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미디어파사드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문화적 아이템이다. 앞으로는 도시의 건측물이 예술적 빛의 문화와 융합됨으로서 활력과 생동감을 줄 수 있는 '도시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崮**

ARCHITECTURE T R A V E L



정병협 나은 건축사사무소 by Chung, Byung-hyup, KIRA

> ·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 건축사지편찬T/F 위원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中)

Dreaming that my life is free

2009년 1월 9일

6시에 일어나 갠지스강변을 산책하고 보트에 다시 올라 주변을 관광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화장터에는 향나무의 하얀 연기 속에서 시신을 태우는 제가 올려 진다. 삶과 죽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갠지스, 보이지 않은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듯하다. 강가에는 솟아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며 목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팬티 차림으로 수영하듯이 목욕하는 이도 있다. 가끔은 주문을 외고 기도하면서도 사진을 찍는 나를 의식하는 눈치다. 셔터를 누르니 정지동작으로 포즈까지 취해준다. 시신을 씻은 물에서 목욕을 하고 심지어 손으로 떠서 마시기도 한다. 정말 이해 불가한 사람들의 나라, 인도다.

갠지스 강의 일출 광경을 남겨보려 했는데 자욱한 안개 속에 묻혀 버린다.

숙소로 돌아가 10시까지 잠을 청하고 10시30분 roof 레스토랑에 들려 볶음밥, 스파게티 등으로 식사를 한다. 드디어 한국서 가져온 고추장이 식탁에 오른다.

어제 찬물로 샤워해서인지 딸내미가 감기 기운으로 몸 상태가 별로다. 바라나시 역으로 가려고 큰길로 나오는데 30분 넘게 또 골목을 헤맸다.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아 2대의 사이클릭샤를 타기로 했는데 나는 수염이 텁수룩한 할아버지의 릭샤를 타고 집사람과 나래 뒤를 따라갔다. 집사람이 걱정되는 지 자꾸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No problem이라며 손을 흔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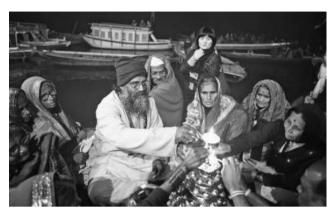
바라나시 역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짐을 맡기려고 보관소를 찾아 이리저리 일층에서 이층으로 돌아다녔으나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은 어떤 젊은이가 안내해주어 구석진 곳에 있는 보관소를 찾았다. 인도인들은 잘 알지도 못



갠지스 강가에서 목욕하는 모습

하면서 아무 곳이나 손짓을 하여 헤매게 만든다. 혹시나 분실 할까 해서 짐을 맡기면서 사진을 찍어둔다.

자투리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 고민하는데 나래가 힌두대학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가보자 한다. 색다른 볼거리가 있을 거같았다. 역을 나오니 릭샤꾼들이 흥정을 하려고 몰려온다. 하나를 골라 타고 가는데 돈을 더 요구하며 중간에 내리라고 한다. 할 수 없이 내려서 다른 오토릭샤를 갈아타고 힌두대학교정문 앞에 무사히 내렸다. 제법 규모가 큰 건물들이 보인다. 교내에 걸려 있는 학교 안내판을 보니 엄청 넓다. 인도에서 5번



화장터에서 의식을 올리는 모습

째로 큰 대학교라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걸어서는 못 돌아다닐 것 같아서 착하게 생긴 나이 어린 소년이 흥정을 하길래 흔쾌히 승낙을 하고 학교를 한바퀴 도는데 설명을 재미있게 한다. 복잡한 거리를 벗 어나 숲속길을 산책하는 맛이 참 상쾌했다. 릭샤비를 치르고 박물관 을 관람하였다. 1층은 조각상과 테라코타 그리고 인도의 동전 등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앨리스 보너라는 영국 여자가 인도에 와서 살 면서 그린 그림들이 전시된 갤러리였다. 입장료가 아깝지 않아 다행 이다. 밖으로 나오니 넓은 잔디밭에는 몇 명의 남자 대학생들이 그림 을 그리고 있고 그 옆에서 여학생이 책을 읽으며 리포트를 쓰고 있었 는데 우리네 대학풍경과 흡사하다.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그 어린 릭샤꾼이 우리를 기다린 듯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는다. 까무잡잡한 피부 때문인지 대부분의 인도남자들은 미백한 치아처럼 이가 유난히 하얗다. (인도 여행 내내 집사람은 왕방울만한 인도남자 의 눈과 까무잡잡한 피부와 치아가 은근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릭샤 를 다시 타고 사원 쪽으로 간다. 벌써 저녁노을이 지려고 한다. 교내 에 있는 사원인데도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 기도를 하는데 엎드려 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다. 이 곳도 역시 입장료와 사이클릭사 주차비는 물론이고, 사원은 신발을 신으면 입 장할 수 없어서 신발 맡기는 것까지도 다 유료다. 다시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연구소 인듯한 건물 안 뜰에서 공작새가 놀고 있는 모습이 평화롭게 보인다.

아그라로 가는 열차를 타기위해 다시 바라나시 역으로 가는데 아까 힌두대학까지 태워다 준 그 릭샤를 다시 타게 되었다. (우리는 인도에서 이런 우연의 일치를 몇 차례 겪었다)

기차 시간이 촉박하여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저녁을 때운다. 기차에서 먹을 오렌지와 바나나 등 과일과 식빵을 샀는데 그 때우리는 이것이 고행의 시작이 될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곧라커룸으로 배낭을 찾으러 갔는데 역에 들어서면서 안내판을 아무리들여다보아도 4863번 아그라행 열차 운행 표시가 없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라커룸에서 짐을 찾으면서 역무원에게 물어보니 우리가예약해 놓은 아그라행 열차 4863 운행이 취소되었다고 심드렁하게

말하는 것이다. 바라나시로 올 때 6시간의 딜레이도 놀라웠는데 출발 30분 전에 cancel 통보라니, "오마이 갓!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가…"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인도인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움직인다. 역 안에 여기저기 깔아놓은 이불들, 그것들을 덮고 누워 있는 인도인들을 보고 있으니 더 화가 치밀어 끓어오른다. 우리가 이 동하는 열차여행 티켓을 모두 예약해 놓은 상태여서 하루라도 늦어 지면 티켓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쓸모 없는 종이가 될 것이다. 아 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어떤 속담으로도 표현할 길 없는 놀라움 을 현실로 받아드리고 극복하는 수 밖에 없었다. 나래가 이리저리 뛰 어다니며 알아보다가 무굴 역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여기서도 바 쁘게 왔다 갔다 하지만 티켓창구가 모두 닫혀있어 표를 구하기가 어 렵다. 나래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더니 매표소로 들어가서 그 인 도 아저씨의 도움으로 general 3장을 끊어서 왔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왔다갔다 하는 딸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표어 가 실감난다.) 덕분에 우리는 툰들라 행 3장을 들고 플랫폼으로 이동 해서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과자도 먹어가며 열 차를 기다린다. 날이 어두워지고 춥다. 델리역에서 본 것 같은 검은 소도 어슬렁거리고 들개같은 큰 개도 눈앞에서 오간다. 그 와중에 이 기차마저도 21시30분에서 새벽 1시 45분으로 딜레이 됐다하니 딸내 미와 집사람이 너무 춥다고 한다. 다시 대합실로 왔다. 배낭을 다시 락커에 맡기고, 대합실에 자기 집 안방처럼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앞 의자에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2시로 딜레 이 됐다고 한 기차가 지금 막 도착했다고 해서 배낭을 급하게 찾아 메고 숨차게 뛰어 3번 플랫폼으로 갔는데 2시 툰들라 행 열차는 빨 간 점만을 남기고 유유히 멀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 대합 실로 다시 가 대책을 세워본다. 알아보니 잠시 후에 6번 플랫폼에서 델리 행 열차가 출발한다고 한다. 표도 안 끊고 부랴부랴 달려간다. 아무 칸이나 올라탔다. 다행히 사람이 없어 다행이었는데 총을 든 군 인같은 사람들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 배낭을 놓고 한숨 돌린다. 건너편 좌석 2층에 있던 젊은 인도청년이 우리 곁으로 내려온다. 나



바라나시 대학교에서

래 이야기를 듣고 티켓을 보여 달라하더니 여기 있으라고 한다. 2시 경 열차는 드디어 무굴 역을 출발한다. 007 영화를 찍고 있는 거 같 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이다.

1월 10일

1층 침대칸에 짐을 부리고 새우잠을 청한다. 새벽 4시경 누군가 기척해서 일어났더니 우리자리의 임자들이다. 짐을 챙겨 출입문 쪽으로 옮겼다. 열차가 설 때마다 누런 제복의 무장한 군인들이 내렸다가 다시 탄다. 죄지은 것처럼 불안하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세차게들어온다. 잠이 오지 않아 No smoking이라 적힌 승강구 앞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기도 했다.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여기도 흥정이 통하는지 반 값으로 해결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아침이다. 7시. 기차를 타기 전 샀던 오렌지와 바나나와 식빵을 꺼냈는데 식빵은 거의 대부분이 부스러져 빵가루가 되어 있다. (노점에서 파는 인도식빵은 딱딱하다.) 눈물 젖은 빵이 아닌 한숨 뿌려진 빵가루인 것이다. 빵가루와 과일로 아침을 때우고 창밖을 내다본다.

어젯밤 그 젊은이가 가르쳐 준 깐뿌르 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아 그라를 제대로 찾아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열차지도를 한국에서 확 대 복사해 왔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다. 역무원이 가르쳐 준 대로 10시 25분에 내려 건너편에서 툰들라 행으로 다시 갈아탔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탄 열차가 툰들라행이 아니고 델리 행이라고 한다. 툰들라 역을 그냥 지나치고 있었다. 또 오마이갓. 14 시에 시골역 같은 허허 벌판에 있는 Kurara역에 내려야만 하는 심 정… 원숭이 구경하듯이 열차에 탄 인도인들은 우리가 가는 대로 그 들의 왕방울만한 눈동자를 움직인다. 역에 있던 인도인들은 우리를 따라 움직인다. 그 무엇을 물어 볼 수도 없어 육교를 건너 역무실로 가서 물어보니 아그라 행 열차가 2시에 있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육교를 뛰다시피 하여 오고 있는 로컬열차에 간신히 올라탔다. 자리 는 커녕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공간에서 덩치 큰 배낭까지 메고 어정 쩡하게 있는 아내와 딸을 보니 너무 안쓰러웠는데 어떤 인도남자 한 분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에게 자리양보를 하라 말한다. 아까 우리 를 태워준 역무원이 사람들에게 무어라 큰 소리로 외쳤는데 아마도 여행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말이었던가 보다. 정거장에 열차가 잠시 머무는 동안 그는 잽싸게 내리더니 짜이를 사들고 우리에게 건 넨다. 내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다.

아그라에 도착하니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친절한 인도 남자의 배려에 무사히 일정대로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행운이 다. 꼬박 하루가 걸리긴 했지만 말이다. 딜레이 되어 가는 것도 힘들 었지만 캔슬 되어 떠나기는 더욱 어려웠던 바라나시는, 우리 가족에 게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준 셈이다. 나래는 여행사 에 전화를 걸어 조디뿌르행 기차를 취소했다. 이제 숙소를 정해 깨끗 하게 씻고 저녁을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다. 인도100배 즐기기에 나와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갔는데 핫샤워가 안 돼 타지마할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핫(hot)샤워가 되는 시설이 좋고 마음에 드는 호텔 (Hotel Shella)을 찾아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 타지마할 주변의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곳이어서 무장경찰들이 Gate를 막고 차량통제까지 하고 있었다. 대강 짐을 풀고 한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다는 Jonny's place라는 식당에서 오므라이스와 라면, 감자 고로케, 바나나 라씨 등을 먹었다. 양배추로 만든 김치와 라면의 절묘한 조화라니. 인도에서는 모든 게 용서된다. 배고픔만 해결된다면… 어둠에 묻힌 타지마할 동문쪽을 걸어서 숙소로 돌아오며 내일 만날 타지마합을 그려본다.

1월 11일, 아그라

7시 기상하여 roof 레스토랑에 올라가니 아침 해가 뜬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상쾌하다. 어제까지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올리니 여기가 천국이다. 옆 테이블의 한국 여자 관광객이 세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고생했던 이야기를 한다. 다시는 못 올 곳이라며 한마디 덧붙인다. 우리도 지금까지의 생생한 여행정보를 교환한다. 프렌치토스트, 오믈렛(버섯&토마토), 후라이&토마토, 라씨와 짜이로 아침 식사를 한다. 옆자리에서 에그&어니언 오믈렛이 맛있다 하여 우리도 더 시켜 먹었다. 타지마할을 곁에 두고 있어서 밥맛이 더욱 좋았을까?

타지마할 East Gate로 이동하는 길에 인도 학생들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걸어가길래 같이 사진 찍자고 집사람이 제의하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같이 기념 촬영을 한다. 과거 인도인들은 사진을 찍는 것이 영혼을 빼앗기는 거라고 기피했다는데 지금은 그 반대다. 몇 컷을 찍어도 웃으며 포즈를 취한다.

타지마할에 입장하는 길에 아그라행 열차를 놓쳐 취소했던 조드뿌 르행 열차 대신에 버스티켓을 구입했다.

11시경 East gate로 입장하는데 입장료도 비싸지만 몸수색과 가 방검사를 철저히 한다. (입장이 불가한 것들은 락커에 보관해야 한 다)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세계 최고의 건축물인 타지마할



타지마할반영



타지마할전경

을 구경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푸르른 하늘과 흰구름도 그림처럼 떠있다. 날씨마저 즐겁게 해준다. 아치형 입구에 들어서 니 순백색의 타지마할이 파아란 하늘 아래 흰 드레스를 입은 여신처 럼 보인다.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입구에서부터 사진을 찍는 사람 들로 붐빈다. 사람들의 물결에 끌려 발걸음을 옮긴다. 연못에 비친 타지마할의 모습도 너무 근사하다. 시시각각으로 순백색의 타지마 할의 색상이 바뀌는 것을 사진기에 담느라 정신 없다가 주위를 둘러 보니 집사람과 나래가 안 보인다. 앞으로 갔을거라 여기며 타지마할 을 향해 계속 걸어가니 다이애나의 의자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나 래와 집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다.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나래가 점프 하는 모습을 찍었다. 내 마음도 나래처럼 점프한다. 입구에서 어마 어마하게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니 덧신과 생수 1병씩을 준다. 가까 이에서 타지마할을 보니 더욱 황홀하다. 겉모습에 이미 반했는데 정 작 내부의 장식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외장재, 내장재가 모두 대리 석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이 장식 모두가 보석까지 넣어가며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어있다. 아내를 끔찍이 사랑한 샤자한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 타지마할은 몽골제국이 멸망한 후, 몽골계의 후손이 인도에 무굴제국을 세웠는데 1630년경 "샤 자한"이라는 무굴제국 황제가 1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15 번째 아이를 낳다가 죽은 왕비를 추모하여 세운 묘이다. 샤 자한은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여 죽어서도 불에 타지 말고 영원하라 고 묘 이름도 타지마할로 붙이고. 이 건물을 지은 장인들은 다른 곳 에 짓지 못하도록 황제가 장인들 손목을 잘라 버렸다고 한다. - 왕비 의 묘 주위는 어두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관리인들이 사 진을 찍지 못하게 하고 있었지만 그냥 가기가 아쉬워 감쪽같이 사진 한 장을 남겼다. 밖으로 나오니 파란 하늘에 햇빛이 찬란하게 비친 다. 나와서도 이리저리 포즈를 취해가며 타지마할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남겨본다. 아내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타지 마할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생각난다면서 자기가 이 곳에 왔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고 말하며 아이처럼 좋아한다. 타지마할을 구경하 는 오늘은 모두들 기분이 좋아 계속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머문다. 떠날 시간이 되어 남쪽 게이트로 나왔지만 마음은 타지마할에 머문

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나올 때처럼 아쉬운 마음이 남는다. 기념품 가게들이 꽤 있었는데 지나는 길에 타지마할 열쇠고리만 샀다.

4시까지 여행사에 가야하므로 어제 저녁에 갔던 Jonny's place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4시 30분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과일, 과자 등을 사고 버스가 출발하기를 기다린다. 이곳은 터미널이라고 해봐야 도로가에 차를 세워놓고 손님을 태우고 가는 정도의 공간이다. 바라나시에서 아그라로 가는 열차가 취소되어 거의 하루를 길에서 소비했기 때문에 미리 예약 해 놓았던 열차는 시간이 안 맞아 취소하고 버스로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한다

우리가 타고 갈 버스가 리무진 버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우리나라의 70년대 버스 수준이다. 카메라 덕택에 버스티켓을 끊을 때바가지를 썼나보다. 인도사람들은 고가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생각한다. 자리를 잡고 잠시 기다리니 17시30분조드뿌르를 향하여 출발한다. 버스 엔진소리가 요란하다. 시동을 걸때는 오토바이 엔진소리 같다. 이 버스에 몸을 싣고 12시간 이상을이동을 해야 한다니 아찔하다.

2층 침대칸에 집사람과 딸내미가 타고 나는 1층 좌석에 앉았는데 1층 좌석이 너무 힘들고 불편하여 2시간 가고 쉬어 갈 때 무조건 내려 스트레칭을 하였다. 간간이 쉬는 곳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 아닌 포장마차 수준으로 화장실도 변변찮고 모든 게 불편하지만 길가에서 계란을 부쳐 넣은 토스트를 사먹고 짜이를 마시며 인도풍을 몸으로 체득하는 맛도 나름 괜찮다. 휴게소에 쉴 때마다 -인도인들은 남의 것을 자기것으로 생각하는 근성이 있기에 - 잃어버릴 새라 목베게를 가지고 내리는 나를 보고 아내가 피식 웃는다. 정말 절실하면 스스로 챙기게 마련인가 보다. 버스가 달리면 자동으로 유리창이 조금씩 열리며 찬바람이 들어와 춥다. 모든 것을 몸으로 때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여분의 옷가지로 몸을 두르고 잠을 청하며 예정보다 2시간 늦은 7시 45분에 조드뿌르에 도착한다.

1월 12일 조드뿌르

이 곳이 종착역이 아니라서 버스 뒤 짐칸에서 배낭을 꺼내는데 배낭이 완전히 흙먼지 범벅이 되었다. 얼떨결에 짐을 내리는데 버스는 매연을 내뿜으며 급하게 출발한다. 주변에 있는 고빈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따뜻한 물에 기분 좋게 샤워를 한다. ROOF 식당에 올라 성곽을 보며 늦은 아침을 먹는다.

조금 쉬다가 14시 쯤 성곽 구경을 위해 숙소를 나온다. 오토릭 샤를 전세 내어 편하게 이동하였다. 이것이 자유여행의 참맛이다. 제일 먼저 찾아 간 곳은 우메이드 바반 팰리스(Umaid Bhawan Palace)인데 사다르 바자르(Sadar Bazaar) 시장에 있는 시계탑을 가려다가 시간상 방향을 틀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중간에 쉬어 경치를 감상하기도 했는데. 초원은 아니지만 들



우메이드 바반 펠리스

녘에 얕은 강이 흐르고 파란 하늘에는 새들이 무리지어 날아다니고 들소들이 떼지어 강가에 앉아서 쉬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기만 했다.

우메이드 바반 펠리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왕실 저택이라고 하며 각기 다른 모양의 방이 346개가 있어 더 유명하다고 한다. 지금은 왕실 가족이 쓰던 사치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유명인사가 머무르는 호텔로 개조됐다. 외관도 화려하여 눈을 떼지 못한다. 이어 높이 121미터의 메헤랑가르 성(Meherangar Fort)을 자나 자스완트 탄다(jaswant Thanda)를 먼저 구경한다. 이 기념관은 아그라의 타즈마할과 같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파란 하늘과 어울려 순백색의 건물이 유난히 더 아름다웠다.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호수는 너무 맑고 청정한 물빛이어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시내는 파란색의 건물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최상층 브라만들이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일부러 칠해 놓았다 한다. 자스완트 탄다(jaswant Thanda)를 배경으로 가족사진도 많이 찍어둔다. 마냥 머무르고 싶지만 다시 메헤랑가르 성 (Meherangar Fort)으로 이동한다.

메헤랑가르 성(Meherangar Fort)은 산 정상부에 세워졌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서 시내에서도 하나의 산봉우리처럼 한 눈에 보인다. 입구에서 암벽위에 조성된 성을 올려다보니 섬세한 조각품처럼 보인다. 파란 하늘이 성안을 둘러보는 걸음걸이를 더 가볍게 한다. 자이뿌르. 바카베르 연합군(Jaipur Bikaner Alliance)을 물리친 기념으로 세운 개선문인 자야 폴(Jaya Pole)을 지나 태양의 문이라 불리우는 수라즈 폴(Suraj Pole)로 들어서면 왕궁을 개조한 박물관이 나오는데 마하라자의 대관식이 거행 되었던 모띠마할(Moti Mahal)과왕과 시녀들의 댄스홀이었던 풀 마할(Phool Mhal)은 '진주의 궁전'. '꽃의 궁전'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의 화려한 아름다움에 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성내부에서 보는 바깥 풍경도 아름다웠다.

눈을 한껏 즐겁게 하고 밖으로 나오니 벌써 노을이 지고 있었다. 출구 쪽에는 피리 부는 아저씨 둘이 있었는데 소박한 대학생들로 보이는 이들이 민속 음악이 나오니 갑자기 두리둥실 흥겨운 엉덩이춤을 추고 있다. 인도 여성들은 꽤나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내 게는 이례적으로 보였다.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노을이 벌겋게 달아오르니 사진거리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니 두 사람이 빨리 가자고 성화다. 카메라를 들고 서서 그 자리에서는 어떤 구성도 되질 않았는 데 뒤를 돌아보니 때마침 낙타 몰이꾼이 지나가고 있었다. 재빨리 뒤 로 뛰어가 셧터를 눌러 보지만 마음만 급했는지 그냥 그렇다.

전세 낸 오토릭샤꾼이 지금껏 기다리고 있다. 오늘 저녁은 타즈 (TAJ)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하고 릭샤꾼에게 지도를 보여주고 찾아간다. 타즈(TAJ)호텔 레스토랑에 도달하니 제복을 입은 사람이 문을 열어주며 아주 친절하게 안내한다. 이곳 주변은 인도의 일반인이 쉽게 접근을 못하게 차단하는 듯했다.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우리나라 고급 호텔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식사하는 내내 옆에 서서 말하지 않아도 소리없이 서비스를 한다. 비용은 들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본다. 분위기 있게 먹은 후 인도 민속공연도 잠시 보고, 기념사진도 찍어본다.

자이살메르로 가는 열차는 딜레이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뻤는데 기차는 10시 30분에 왔지만 출발은 11시 30분에 했다. 어디나 인도식이다. 생전 처음 하는 낙타 사파리를 기대하며 침대칸에 누워 잠이든다

1월 13일~1월 14일, 자이살메르

새벽 5시 30분 자이살메르라고 해서 열차에서 내린다. 깜깜하고 춥다. 오토릭샤를 탔다. 비좁은 릭샤 안에 배낭을 싣고 세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 앉았는데도 차가운 기운이 옷 속으로 비집고 들어온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변화가 심하다

6시20분 숙소인 타이타닉 호텔 앞에 다다른다. 호텔 문이 잠겨있어 한참을 두드리니 노인 한 분이 팬티바람으로 나온다. 수속을 마치고 지하실 방에 임시로 짐을 풀고 정리하고. 7시30분 Roof 식당으로 올라가니 찬바람이 꽤나 매섭다. 아침노을이 벌겋게 주위를 물들인다. 언덕위에는 성이 우뚝 서 있고 새떼들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닌다. 까마귀 울음소리도 섞여 들린다. 뜨거운 짜이 한 잔으로 허기와 추위를 달래가며 식사를 기다린다. 인도여행 필수코스라서 이 곳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많이 상대해서 한국말을 아주 능숙하게 한다. 인도라면과 김치볶음밥, 오



메헤랑가르성에서 바라 본 조드뿌르 시내 전경



자아샬메르 성 전경

물렛을 시켜 유난히 착해보이는 청년에게 서빙을 받으며 먹는다. 카레 맛이 강한 인도라면은 국물을 직접 만들어 요리했다고 한다. 무청김치가 제법 먹을만 했다. 볶음밥은 양이 너무 많아 남긴다.

숙소에는 낙타 사파리를 즐기러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눈에 띤다. 처음에는 모두 홀로 왔는데 지금은 모두들 쌍쌍이 되어 다닌다. 낙타 사파리가 매우 춥다고 하여 배낭에서 옷가지들을 더 꺼내왔다. 옆에 있던 청년이 손난로 2개를 건넨다. 같은 처지에 따스한 인정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맙다. 10시에 출발한다고 했는데 11시가 돼서야 출발을 한다고 한다. 따듯한 햇볕을 쬐며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짜이도 마시며 직원들과 사진도 찍어가며 기다린다. 같이가기로 한 일행 중 감기 때문에 못 가는 이도 있었다. 나래도 감기가 걸려 있었지만 우리는 강행했다. 봉고차를 타고 라자스탄 사막 사파리 캠프에 11시 30분에 도착하니 우리가 타고 갈 낙타들이 무리를 이루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낙타들의 눈이 소처럼 크고 순하다. 큰 눈이 슬퍼 보이기도 한다. 얼굴에 파리 떼가 앉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주변 풍경을 감상하다가 낙타 등에 올랐다. 낙타가 뒷발부터 일어나더니 앞발을 치켜 일어선다. 순식간에 내 몸이 공중으로 솟았다. 낙상이라도 하면어쩌나 순간 아찔했다. 낙타의 움직임에 맞추며 몸의 균형을 잡고 카메라를 조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낙타몰이 대장인 장보고(닉네임)는 묵묵히 걸어가고 나이 어린 몰이꾼은 고삐를 잡고 걸어간다. 2시간 정도 가니 점심을 먹기 위해 낙타에서 내린다. 장보고를 비롯 다른 몰이꾼들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팬에 굽고(짜파티라 부른다), 감자를 썰어 커리를 만든다. 그동안 낙타들은 앞발이 묶인 채 그들만의점심을 먹는다. 타잔이 나올 것 같은 숲속 풍경에다 원시적인 요리도구 등이 이번엔 아프리카 탐험 영화를 찍는 기분이다. 처음 접하는 풍경이라 신기하기만 하다. 별 맛없는 짜파티와 커리지만 맛있게 먹는다.

휴식을 취하고 다시 사막을 향하여 14시 45분 출발한다.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졌다. 중간에 오아시스 같은 연못이 있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주위의 염소와 소들도 몰려와 같이 물을 먹는다. 다시길을 떠나는데 넓은 벌판에서 염소가 혼자 서서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16시에 도착하여 모래바닥에 짐을 푸니 날아갈 것만 같다. 짐을 풀자마자 모래언덕으로 뛰어가 사막의 기운을 느껴 본다. 같이 온 젊 은이들은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우리 가족사진을 찍어주고 벌써 저만 치 뛰어간다. 그들은 사막 위에 크게 L. O. V. E.라고 쓰고 사진을 찍더니 숨바꼭질하듯 여기저기서 불쑥 나타난다. 사막을 닮은 뜨거 운 젊음이다. 보고 있으니 절로 흥이 난다. 나래와 집사람이 모래언 덕위에 누웠다. 얼른 사진기에 담는다. 걷는 발의 감촉이 포근하고 아늑하다. 두 마리의 낙타가 마주 보고 앉아 한 포대에 담긴 먹이를 먹는 장면도 사진기에 담는다. 평화롭다. 저녁 식사는 우리가 가져 온 고추장 하나로 11명이 비벼 먹었다. 저녁 먹고 노숙할 자리를 펴 고 짐을 챙겨놓는다. 때마침 하늘에는 노을이 멋지게 든다. 내가 기 대했던 멋진 풍경이 펼쳐진다. 연신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나중에 보 니 너무 급했는지 제대로 나온 사진이 없어 많이 아쉬웠다. 8시경 어 둠이 깔리자 바비큐 파티가 벌어진다. 장보고는 주위의 마른 가지를 주워 모아 불을 붙인다. 고구마, 감자, 닭을 호일에 싸서 모닥불에 던져 넣는다. 밤하늘에 은빛 찬연한 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맥주 도 곁들인다. 오손도손 모닥불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모여 앉아 이야 기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다들 혼자 여행왔다가 자이살메르에서 만 났다고 했는데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없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밤하 늘은 빛나고, 마음은 흥겹고 ... 감자와 통닭 바비큐을 이렇게 맛있 게 먹기는 처음이다. 언제 왔는지 들개 한 마리가 다가온다. 약간 겁 이 났지만 닭다리를 던져준다. 마른 나무를 수북이 쌓아 뒀는데 어느 새 다 없어진다. 낙타몰이꾼들은 자러 가자 우리도 침낭 속으로 들어 간다. 그런데 나래와 젊은이들은 새벽까지 놀 셈인지 마른 가지들을 다시 모아다가 수북이 쌓아 놓는다.

모래바닥에 깐 침낭 속에 누워 밤하늘을 보고 있으니 -여행을 떠나기 전 사막사파리의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나래의 고등학교 사회선생님께서 사막사파리에서 별이 쏟아질 듯 많고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을 듣고 내심 많이 기대했었다~ 쏟아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맑고 촉촉한 별이 아름다워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젊은이들의 이야기 소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듯했다. 일출을 보러 일찍 일어난다. 여행을 오면 나는 이상하게 아침잠이 없어진다. 사막 위의 일출. 근사하다. 같은 자리에서 일출과 일몰을 같이보게 되는 인도의 땅덩어리다.

1월 14일

나래가 꼴찌로 일어났다. 거의 밤을 샌 모양이다. 어제와 달리 다들 초췌한 얼굴이다. 9시에 삶은 계란과 토스트로 아침을 때우고 일 찌감치 숙소로 출발한다. 가랑이가 아팠지만 다시 낙타를 탄다.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를 들지 않았다. 어젯밤의 들개가 계속 우리를 따 라온다. 돌아오는 길은 볼거리도 없다. 바람만 여전히 매섭게 분다. 10시 50분 캠프 입구에 도착하여 다시 차를 갈아타고 11시 50분에 숙소에 도착한다.

Roof 식당에서 라면 3개를 먹더니 나래와 집사람은 햇빛이 따가운 옥상임에도 불구하고 소파에 누워 잔다. 많이 고단했었나 보다.



저아샄메르 사막에서 가족의 포즈

나도 고단하긴 했지만 자는 시간도 아까워 카메라를 들고 자이살메르 성으로 홀로 간다. 입구가 금방 보일 것 같은데 쉽게 안 나온다. 입구에 들어가니 성안에 사람들이 기거를 하며 관광 상품도 판다. 게스트 하우스도 많이 있고 옷가게들도 많다. 연보라색 셔츠와 낙타가 그려져 있는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 샀다. 인도의 문화재 보호 정책이 마음에 든다. 기거를 하며 물건도 팔지만 문화재를 전혀 손상하지 않고 수리를 하여 문화재의 원형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북촌 마을 등의 문화재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재개발을 하지 않으려면 이곳에 정착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돈을 벌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어서 밖으로 나와 시내 구경도 하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길이 비슷비슷해 보여 몇바퀴를 돌았다. 숙소에 가까이 다다르니 집사람이옥상에서 빨리 오라고 소리를 친다. 부지런히 옥상에 올라가니, 원래 여행 코스는 아메다바드로 해서 뭄바이로 갈 예정인데 코스를 바꾸자는 것이다. 예전에 인도여행 가이드했던 청년에게 물으니 우다이뿌르를 보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차 시간이 촉박하니빨리 결정하라는 것이다. 사장이 주선하여 버스표를 구해놓았다며 30분 내에 가야 된다고 하여 우다이뿌르행 버스터미널로 급하게 떠났다.

1월 15일~1월 17일, 우다이뿌르

터미널에 도착해 승차권을 구매 했다. 전에 아그라에서 조드뿌르로 갈 때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침대칸으로 선택하여 그런대로 편하게 가게 되었다. 맥주 한 잔씩 먹고 승차하여 우다이뿌르로 향한다. 우다이뿌르는 인도 서부 제일의 신혼 여행지이자 호반도시로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한 라자스탄 남부에 위치해 있다. 아름

다운 피촐라 호수Lake Pichola와 호수속 작은 섬처럼 자리잡고 있는 호반궁전 레이크팰리스의 아름다움은 많은 인도인에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이다. 1월15일 새벽 5시 우다이뿌르(Udaipur)에 도착하여 숙소를 잡으러 오토릭사를 잡아타고 출발한다. 릭사꾼은 출발하기 전에 흥정을 어렵게 하더니 내려서도 생트집을 잡는다. 릭샤꾼들과의 마찰은 마음을 불편하다. 새벽녘이라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다. 처음 가려고 했던 Dream Heaven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주위의 다른 곳을 찾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처음 가려고 했던 Dream Heaven 옆 하얀 호텔(아쉽게도 호텔이름은 기억나지 않음)의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잠에서 깬 듯한 남자가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많이 비싸긴 하였는데 하얀 이불과 내부 장식이 깨끗하고 쾌적하여 마음에 쏙 들었다. 여유있게 샤워도 하고 세탁물도 맡기고 인도에 와서처음으로 침낭을 깔지 않고 그냥 잤다. 아침을 먹고 와서 또 잤다. 잡자리가 편안하니 잠이 밀려온다. 오후 2시가 넘었다.

낙타 사파리 체험이 힘들었는지 온 몸이 쑤시고 아프다. 입술도 부풀어 오른다. 간신히 몸을 추스려 오후 3시쯤 시티펠리스로 향하 며 이번엔 바가지 쓰지 않기를 바라며 가는 길에 뭄바이 행 버스티켓 을 예매한다. 시티팰리스로 가는 길은 복잡하고 점포들이 줄지어 있 었는데 주변 환경이 열악해 보인다. 시티팰리스 입구에 들어서니 노 인으로 보이는 궁전 관리직원이 쪼그리고 앉아 망치와 정으로 대리 석으로 깔려있는 도로면을 다듬고 있었고 장총을 든 경비원이 입구 를 지키고 있었다. 시티팰리스(City Palace)는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만 지어진 궁전이었는데 라자스탄을 대표할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오후 5시까지 구경하고 호수로 가기위해 워킹을 하였는데 너무 멀다. 할 수 없이 오토릭샤를 타고 파테시가르(Fateh Sagar) 호수(피촐라 호수 북쪽에 있는 인공 호수)로 간다. 이곳에서 페달보 트를 빌려 타고 아름다운 호수를 한 바퀴 돌려고 하였으나 너무 힘이 들어 중간에 유턴하여 시간도 못 채우고 돌아온다. 다시 릭사를 타고 숙소 옆 Dream Heaven Roof 식당에서 야경을 즐겼는데 카페 분위 기가 낭만적이었고 많은 서양인들도 저녁을 하고 있었다. 오후8시 쯤 숙소로 돌아와 그대로 곯아 떨어졌다.

1월 16일

우다이뿌르 체류 이틀째이다. 몸 상태가 아직까지 별로다. 8시 아침 식사 후 조망을 하니 멋있는 궁전 같은 곳이 길게 펼쳐져있어 물어보았더니 호텔이라고 한다. 딸내미한테 저기 가서 차 한 잔 할까했더니 너무 비싸다고 한다. 무조건 10만원 정도하는 뷔페를 먹어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숙소 앞 정원에서 휴식을 취한다. 다람쥐도 내앞에서 놀다 가고 사원 뜰에는 원숭이 부부가 놀고 있다. 호수 가에는 동네 아이들이 야구 비슷한 인도의 전통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다시 객실로 돌아와 점심 때까지 잠을 잔다.

주변 골목 풍경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소품도 사며 구경하다가 오후 4시쯤 오토릭샤를 전세내어 몬순팰리스를 간다. 시골길 같은 포장도로를 달려간다. 매표소를 통과하고 산길을 달리니 멕시코 선 인장 같은 식물도 보이고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요상한 나무들이 줄 지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든다. 굽이굽 이 도는 고개를 빙글빙글 돌아 정상에 오르니 잘 관리되어 있는 정원 과 궁전을 보고 또 한 번 눈을 동그랗게 뜬다. 원숭이들도 나뭇가지 에 올라 모델 노릇을 한다. 사진을 찍으려다 옆에 갔다가 달려드는 바람에 혼났다. 숲속의 야생 원숭이라 거칠다. 관광객은 인도 사람 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다이뿌르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작 은 산들 사이에 호수가 떠있고 그 옆으로 하얀 집들이 촘촘히 박혀있 다. 멀리 보이는 산은 우리의 지리산 능선처럼 길게 뻗어있다. 산 아 래 집들은 군데군데 떨어져 있어 마치 스위스의 농가처럼 예쁘다. 타 워에 오르니 아래가 더 깎아지른 듯이 보인다. 기둥에는 하트 모양 의 사랑의 낙서들이 곳곳에 있다. 오후 6시경 하산하는데 하나 둘 씩 도시의 불빛이 켜진다. 아름다운 일몰과 야경을 동시에 감상하고 있 다. 릭샤꾼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천천히 운전하고 있어 충분히 즐기 며 내려간다.

몬순팰리스에서 나와 라자스탄 민속무용 공연을 하는 바고르키하 멜리(Bagore-Ki-Haveli)로 이동한다. 공연장 입구에서 나래와 집 사람은 nail painting을 한다. 손톱에 코끼리와 공작새들을 세필로 그려 넣는데 인도사람들은 손재주들이 많은지 곳곳에 성업을 하고 있다.

집사람에게 나래랑 시스터냐고 물어보아 엽서 한 장을 샀다고 한다. 인도인도 상술이 뛰어나다고 하려다가 그만 두었다. 7시에 본격적인 민속무용 관람이 시작됐다. 명석을 깔고 앉아 관람하는데 같은호텔에 묵고 있는 관광객들도 보인다.

이 곳 바고르키하멜리(Bagore-Ki-Haveli)는 18세기에 수상을 역임했던 바고르가 머물렀던 저택인데 총138개의 방과 안마당까지 갖춘 거대한 규모로 지금은 민속공연을 전담하는 문화센터로 활용 되고 있다. 공연은 불항아리를 머리 위에 놓은 여인이 경쾌한 리듬 에 맞춰 춤을 추었고 다음 2명의 무희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공작새 털을 들고 춤을 춘다. 또 여러 명의 무희들이 베일처럼 사리를 뒤집



시티펠리스(City Palace) 전경

어쓰고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춘다. 인형극도 보여준다. 피날레 공연은 항아리를 하나둘씩 머리위에 점차 올려가며 9개까지 올리고 묘기하듯 춤을 보여주는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재미있게 공연을 관람하고 나오니 군 장성인 듯 보이는 사람도 같이 나왔는데 몇 명이서호위를 한다. 인도의 장성들도 대접을 잘 받는 모양이다.

1월 17일

7시 기상하여 8시 30분 아침을 먹고 릭샤를 대절하여 인도 민속촌인 쉴프그람(Shilpgram)으로 향한다. 시골 길같은 도로를 달려 11시에 도착하였는데. 한적하다. 외국인 관광객 몇 팀이 있을 뿐이다. 입구 점포에서 짜이를 한 잔 시켜먹고 일단 주변을 감상한다. 서서히 걷는 기분도 좋다. 건



쉴프그람(Shilpgram)에서의 민속공연

물들은 우리의 초가집 같은 분위기가 많이 풍긴다. 그네도 타본다. 중년 남성이 능숙한 솜씨로 도자기 굽는 모습들도 보이고 길거리 액세서리 좌판 매점도 구경한다. 손님을 유치하기위해 작은 악기로 연주를 하기도 한다.

어떤 가게에서 인형을 파는데 5명의 가족이 나와 있었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 딸아이를 보니 얼굴에 검은 칠을 했다. 이유를 물으니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밉게 하고 있어야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나래가 말한다. 일종의 민간신앙이다. 그래도어쩐지 애처로운 생각이 들었다. 출구 쪽으로 걸어나오는데 때마침전통 민속공연을 하고 있어 재미있게 봤다. 릭샤를 타고 돌아오는데양떼들이 유유히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다. 공원에서 할아버지가 손주 셋을 등에 태우고 같이 놀고 있다. 평화로운 정경에 이끌려릭샤에서 내려 잠시 휴식을 취한다.

다시 Dream Heaven Roof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다가 터미널로 간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델리에서 만났다가 헤어졌던 은희 씨를 10일 여만에 다시 만났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놀랍다. 그녀들은 둘다 베네통 가디건까지 입고 있었다. 헤어질 때한 말이 실제 현실이 된 것이다. 둘이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담소를 나누다가 서로 여행지가 달라 또 다시 헤어진다. 버스에 오르니자이살메르에서 낙타사파리를 같이 갔던 한국 청년들이 인사를 한다. 오늘은 두 번씩이나 반가운 사람들을 우연히 만났다. 행운이라는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침대칸에 누워 석양을 보며 뭄바이로 떠난다. 間

ARCHITECTURE T R A V E L



장미경 건축사사무소 장승 by Chang, Mi-kyung, KIRA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 본협회 발주제도개선T/F 위원

2011 수원지역건축사회 남도건축기행

2011 JeollaNam-do Architectural Trip of Association of Suwon Architects

평소 월례회나 협회 행사 때에 얼굴 한 번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건축사들까지 합세하여 크게 한 번 뭉쳤다.

외국도 아닌 국내, 그것도 겨우 1박2일 일정이 무슨 큰일이냐 하겠지만 그동안 변변한 단체여행 행사가 없었던 수원에서 80여명의 건축사가 1박2일 동안 뭉쳤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여행은 30대 신입건축사부터 80대 원로 건축사까지 함께 했는데, 특히 비회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의 화합을 다졌다.

8월 26일 (금)

남도 건축기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수원지역건축사 80여명이 시청 맞은편 국기봉광장에 일찌감치 모였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청 건축 관련 과장 세분이 나와서 배웅을 하며 금일봉까지 우리 손에 쥐어 주었다. 감사 또 감사!

버스가 출발하자 황정복 회장은, 그동안 일하느라 생긴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1박 2일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인사말로 분위기를 띄우며, 새로 입회한 신입회원과 비회원도 있으니 자기소개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수원지역건축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의사항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의 하였다.

회원들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거나, 긴 버스여행에 술이 없는 아쉬운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고, 원로건축사분들은 감



개무량한 듯 옛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도 모르게 어느새 땅끝 마을 해남에 도착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우린 도착 하자마자 미리 준비해 놓은 해남의 백반을 배불리 먹고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점심을 맛있게 먹은 우리들은 먼저 해남읍 연 동리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찾았다.



해남 윤씨 종가인 녹우당에는 지금도 윤선도의 14대손이 살고 있는데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을 별도로 지어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황회장과 녹우당의 특별한 인연으로 우리들은 안채를 빼고 다 볼 수 있었다. 특별한 행운이었으며 좋은 인연에 또 감사!

사적 제167호로 지정된 녹우당은 윤선도의 고택으로 전라남도에 남아 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것이다. 현재는 해남 윤씨 종가 전체를 통틀어 녹우당이라 부른다. 녹우당 입구에는 약500년 된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서 있고 뒤편 덕음산에는 천연기념물 제241호인 비자나무숲(수령 약500년 된400여본)이 있다. 바람이 불면 비자나무 잎 떨어지는 것이 마치 비가 내리는 듯 하다 해서붙여진 이름이 녹우당이다.

녹우당 뜰 안에는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문간채가 여러 동 있다.

녹우당의 사랑채는 효종이 윤선도를 위해 수원에 집을 지어 주었던 것을 일부 뜯어 옮겨온 것이다. 건물은 'ㅁ'자형을 이루고 있는데집 뒤편 담장너머에는 제각인 추원당이 자리 잡고 있다. 고택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해남 윤씨의 중시조인 어초은공 윤효정의 사당이, 그옆에는 윤선도의 사당이 있다.

윤선도 유물전시관에는 윤선도가 직접 쓴 가첩과 윤선도의 증손이



며 다산의 외증조부 이기도한 선비 화가 공재 윤두서의 작품들을 모은 고화첩(古畵帖) 등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 다수 있다.

그중에는 조선시대의 초상화 중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국보 제 240호 윤두서의 자화상도 있다.

녹우당을 둘러보면서 수원화성과 인연 깊은 다산 정약용, 수원 집을 옮겨온 고택, 그리고 우리 수원지역건축사들… 뭔가 깊은 인연의 끈으로 맺어진 듯한 묘한 기운을 느꼈다.

땅끝 전망대



녹우당을 뒤로하고 다음 여행지인 땅끝 마을로 향했다.

모노레일을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니 진정 여기가 땅 끝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땅 끝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는 끝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곳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는 시 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회원들 모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각자 마음속으로 끝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 잡는 듯 보였다.

땅끝 마을에서 각자가 버릴 것도 많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필 요했는지 일정이 많이 지체되었다.

국립남도국악원





땅끝 마을에서 우리의 숙소인 국립남도국악원에 가기 위해 명랑대 첩지가 있는 우수영 관광지를 뒤로하고 진도대교를 건넜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진도에서도 거의 남쪽 끝에 있었다.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에는 경사진 능선이 바다로 연결된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국악원은 (주)원양 건축사사무소(이종찬, 성진용)가 설계하고 2004년에 준공된 건물로 그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 했다.

국악원에서의 일정은 한옥에 대한 세미나 후 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상 도착 하자마자 식사를 하고 국악 공연을 보았다.

국악공연은 진악당에서 있었는데 기악합주〈난도굿거리〉, 무용〈산조무〉, 가야금병창〈수궁가〉, 기악독주〈거문고산조-한갑득류〉, 무용〈무산향〉, 민요〈흥타령〉, 무용〈진도북춤〉등 정말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공연인 〈진도북춤〉은 북을 어깨에 메고 양손에 북채를 들어 다양한 장단과 몸짓을 표출하면서 힘차게 북을 두드리며 추는 놀이로 북만을 따로 독립하여 별도의 춤으로 승화시킨 것인데 정말로 흥겨웠다.

이것으로 국악체험은 끝인가 했는데 바로 이어 달빛마당에서 '강



강술래' 체험이 있다한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긴 버스여행과 건축 기행으로 무척이나 피곤했기에 숙소에 모여 술이나 한 잔씩 하며 이 야기하다 자야지 '피곤한데 뭘 하나?' 하는 눈치들 이었으나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다.

사회자가 강강술래 예능보유자 박종숙님을 소개했고 이어서 '강 강술래'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저 손잡고 빙글 빙글 돌기만 하면 될 것 같았던 강강술래가 결 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선창과 함께 후렴을 합창하면서 발을 맞추고 속도를 맞춰야 상대 의 발을 밟지 않고 할 수 있다.

단결과 화합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놀이이다.

풀고, 엮고, 돌고 하면서 한 시간을 놀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한 듯한데 기분은 오히려 무척이나 상쾌하고 즐거워 회원들이 더욱 친밀감 있게 느껴졌다. 강강술래를 하는 내내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비단 나만 느낀 감정이 아닌 듯하다. 나는 단체가 화합하고 뭉칠 때 적극 추천하고 싶은 놀이 1순위로 강강술래를 내 마음 속에 새겼다. 선창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강강술래를 끝으로 하루의 공식일정은 끝났다. 사람들은 강강술 래로 흘린 땀을 씻고 삼삼오오 무리지어 자유롭게 모임을 계속 했 다

8월 27일 (토)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침 식사 전 앞 바닷가까지 산책을 다녀오기 도 했는데 우린 국악원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식사를 했다.

식사 후 국악배우기로 오늘 일정을 시작했다. 국악 배우기에서는 민요 '진도아리랑'을 배웠다.

진도아리랑은 세마치장단의 후렴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 응 응 아라리가 났네' 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민요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가사에 뭐든 붙여서 할 수 있는 장단이라서 우리도 대충은 따라 할 수 있었다.

국악배우기를 마치고 어제 시간상 못한 한옥세미나를 바로 시작



했다. 한옥 세미나에서는 우리 지역 건축사로서 홍익대에서 강의도하고 있는 김동훈 건축사가 '한옥의 대중화'를 주제로 한옥에 대한인식과 한옥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강의를 했다. 아울러 김 건축사는 한옥과 한국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신계철 전임회장의 경관세미나에 대한 계획도 있었으나 일정상 다음 월례회의 때 하기로 하고 고건축인 운림산방 답사에 나섰다.

운림산방

운림산방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자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유(1807~1890 후에 허련으로 개명)가 말년에 머물면서 그림을 그렸던 화실로 운림각 이라고도 한다.

시(詩), 서(書), 화(畵) 삼절(三絕)로 청송되었던 허련은 1856년 스승인 추사가 타계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전남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으로 내려가 거처를 짓고 '운림각(雲林閣)'이라 이름 붙였다. 이곳 첨찰산 주위의 수많은 봉우리가 어우러진 깊은 산골에 아침저녁으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구름숲을 이룬다는 뜻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운림산방 내에는 소치선생이 기거하던 가옥과 화실, 영정을 모신 영정 실이 있다.

진도 문화 탐방

운림산방을 돌아보고 진도 문화 탐방에 들어갔다.

진도에서 새로 개발하고 있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니 아름다운 해변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세방낙조 휴게소에 내려 바다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섬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낮이라 낙조는 볼 수 없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섬들을 보니 섬들이 뭔가 더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다음에 올 때는 시간 맞춰 낙조와 어우러진 섬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동석산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우 리는 남도 건축기행의 모든 공식일정을 마쳤다.

돌아오는 길

이평기 진도문화해설사의 이야기가 머리를 스친다.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일과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 했는데 많은 답이 나왔지만 정답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남이 하는 일

이 가장 쉬운 일'이란다. 이 이야기속에 담긴 '역지사지(易之思之)'의 뜻을 생각 하니 싸울 일도 서운해 할 일도 없을 것 이라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건축사들이 내 입장 내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단결과 화합이 훨씬 쉬워 지겠다는 생각을 하며 의자 깊숙이 피곤 한 몸을 맡겼다.

유익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애쓴 수 원지역건축사회 집행부 여러분과 협찬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 린다. **固**



소식

NEWS

현회소식

제8회 이사회

2011년도 제8회 이사회가 지난 8월 24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제도 운영의 건, 제24차 국제건축사연맹(UIA) 세계건축대회 참가지원의 건,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사업」수시감사 재심의결과의 건, 건축사등록기구 운영 계획의 건, 사무기구 직제 개편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ARCASIA Heritage Book 구매의 건,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 건축사등록기구 설치·운영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제도 운영의 건
- APEC 등록건축사제도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APEC 중앙이 사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APEC등록건축사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 우리협회 회원이 APEC등록건축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도 의 등록비 없이 APEC등록건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 등
- 제2호 : 제24차 국제건축사연맹(UIA) 세계건축대회 참가 지원의 건
-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건축사회 교부금 중 시도지원금을 UIA 유치활동비로 지원 요청한 사항은「건축사회 교 부금 지원의 건」으로 하여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3호 :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사업」수시감사 재심의 결과의 건
- 수시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 논의 하기로 하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와 협의하기 로 함
- 제4호 : 건축사등록기구 운영 계획의 건
-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5호 : 사무기구 직제 개편의 건
- 2안으로 하여 행정위원회에서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함. (※ 2안: 본부장 → 사무처장으로 변경, 친환경교육팀을 정책연구실

산하로, 정보전산팀을 운영실 산하에 두는 방안)

- 제6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의 건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운영과 관련한 수시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금년도 정관개정 추진사항 중 공제사업과 관련한 제5조에 대해서는 재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항

■부의안건

- 제1호의안: ARCASIA Heritage Book 구매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구입한 책자(20권)에 대해서는 협회가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건축사회 교부금 지원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지원예산 : 60,000,000원
- ▶ 배분방안 :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에 위임
- 제3호의안 : 건축사등록기구 설치 · 운영의 건
- 건축사등록기구를 다음과 같이 설치 · 운영하기로 함.
- ▶ 명칭 : 건축사등록원
- ▶ 조직 및 업무분장 : 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차기 이사회에 상정
- ▶ 건축사등록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용역 시행
- 2011년도 건축사등록원회계 예산(9억100만원)중 1억원 범위내에서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위원장과 회장이 협의한 후 연구용역 을 발주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
- 연구용역비를 포함한 실행예산과 차입상환계획 등을 등록업무준 비위원회에서 마련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
- ▶ '11.9월중 직원 3명(등록관련업무 2인, 실무수련자관리 1인) 충원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시도건축사회장회의

제2회 시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9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시도건축사회 지원금 교부의 건

- 건축사회 교부금중 시도지원금 6,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도건축사 회별로 100만원씩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4,400만원에 대해서는 시 도건축사회별로 제24차 UIA 세계건축대회 유치단으로 참가지원한 회원 수대로 배분하기로 함.
- 제2호 : 시도건축사회 건의사항의 건
-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에서 제안한 3가지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임을 설명함.
- ▶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건의 : 합리적인 개건방안 검토 예정
- ▶ 불합리한 용역계약조건 개선 건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과 협 의중인 사안임
- ▶ 농어촌공사 설계발주 문제점에 대한 개선 건의 : 해당기관 등에 공 문발송 예정

■제3회 리모델링 T/F

제3회 리모델링 T/F 회의가 지난 8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 개정 방향 및 계획의 건
- 각위원이 내용을 정리하여 사무처에 8월 23일(화)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기로 하며, 사무처는 각위원이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기로 함.
- 다음 회의에서 건축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축조심의를 하기로 함.

■제4회 리모델링 T/F

제4회 리모델링 T/F 회의가 지난 8월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 축조심의의 건
- 리모델링 업무를 명확히 정립하고 대수선과 리모델링을 구분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이를 법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 개정(안)의 건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에서 감리자의 재무상태를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하도록 하여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 출하는 것이 필요함.

■ 제3회 L · H 대가기준 TF팀

제3회 L·H 대가기준 TF팀 회의가 지난 8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 1 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용산기지이전사업(YRP) 건축설계비 조정(안)' 검토의 건

- 용산기지이전사업 건축설계비 조정(안)을 통하여 건축설계비 대가 기준의 현 상황을 정부와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함.
- ▶ C/P Review는 분리발주 시 발생하는 추가요율이므로 대가요율 기준 아래 칸에 '분리발주에 따른 가산율'로 변경하여 작성하기로 학
- ▶ 미국건축사 날인비용은 실비로 정산하고, 비고란에 과거의 미국건 축사 날인비용 지출사례를 기재하기로 함.
- ▶ 건축설계비 조정(안)을 컴퓨터프로그램(엑셀)으로 샘플 작성하기로 하
- 제2호 : '취지문(안)' 검토의 건
- 취지문을 통하여 용산기지이전사업의 건축설계비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홍보하기로 함.
- ▶ 현재 국토해양부 고시의 대가기준을 지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알림.
- ▶ 온건한 입장으로 기본취지를 표현하기로 함.
- ▶ T/F팀 의견 이외에 회원의 의견을 함께 작성하여 취지문 · 건축설계비 조정(안)과 함께 홍보하기로 함.

■ 제4회 L · H 대가기준

제4회 L·H 대가기준 회의가 지난 9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용산기지이전사업 건축설계비 조정(안), 취지문, 협회의견서 최종 검토 및 추후 조치방안 모색의 건
 - 용산기지이전사업의 건축설계비 조정(안), 취지문을 정리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건의공문을 발송하고, 건축사신문 및 건축사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기로 함.
- ▶ 'AIA—Stamping가산'을 '미측 Architect and P.E 검수 및 확인'으로 용어를 정리 함.
- ▶ '미측 Architect and P.E 검수 및 확인'의 요율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의 기준에 따라 25%, 30%, 35%로 차등적용하기로 함.
- ▶ 미측요청 추가업무인 'AT/FP·LEED예비인증'은 5% 가산하기로 함
-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리협회 입장을 밝히는 건의공문과 취지문 을 준비하여 건의하기로 함.
- ▶ 취지문은 박인석교수가 작성한 것을 이근창위원이 수정하기로 함.
- ▶ 취지문에 FIKA 3단체장의 서명을 받기로 함.

■ 제3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3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0일 본협회 회의실 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등록관리업무 범위 및 위원회 · 위원별 업무분장의 건

- 건축사등록원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AEPC등 록건축사관리업무는 현행대로 국제협력팀에서 수행하도록 함.
- ▶ 실무수련자의 관리
- ▶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 ▶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 ▶ 건축사 자격(갱신)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 ▶ 건축사업무 실적의 관리
- ▶ 실무교육
- 건축사등록원의 사무조직은 위원회(안)으로 정하고 행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관련위원회의 업무 내용 중 건축사법시행규칙의 조문은 법제위원 회에서 다루고, 서식은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하기로 함.
- 위원회 위원별 담당업무는 추후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 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세부추진일정 등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시기별로 적절히 조정·시행하기로 함.
- ▶ 차기 회의시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고, 사무처에서 는 유관단체의 등록비. 수수료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함.
- 제3호 : 연구용역 시행방안의 건
- 사무처는 오동욱위원이 작성한 연구용역계획안을 위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위원들은 9월 5일까지 의견을 개진하기로 함.
- 원장은 9월 5일까지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9월 6일 회장, 위원장, 법제위원장 등과 협의 후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 하기로 함.
- 연구용역 관리는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함.

■ 제4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제4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실행예산(안) 및 일시차입(안)의 건
- 실행예산(안)과 일시차입(안)을 이사회('11, 9, 21)에 상정하여 승인 받도록 하며, 일시차입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함.
- 제2호 : 등록비 및 수수료 징수의 건
- 수수료 산정을 위한 자료 수집 후 차기 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 하기로 함.
- ▶ 사무처에서는 수수료 산정을 위한 자료로 실무수련 예상인원(5년 제 건축학과 졸업생 수)과 전문가단체의 교육수수료를 조사하여 차기 회의시 보고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 실무교육 운영방안의 건
- 실무교육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각 위원들이 제시하면(이메일)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차기 회의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 해외 사례(미국, 영국, 중국의 실무교육 운영방안 및 과목)에 대하여 조인숙 위원이 정리 보고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사 윤리선언서 작성의 건

- 건축사등록준비위원회에서 윤리선언서(안)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함.
- ▶ 윤리선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각 위원들이 제시하면(이메일) 이를 사무처에서 정리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 해외 윤리선언서에 대하여 조인숙 위원이 정리하기로 함.

■ 제7회 국제위원회

제7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국제위원회 하반기 활동계획
- 논의사항 없음
- 제2호 : 제24차 UIA 동경 세계건축대회
- 이번 제24차 UIA 동경 세계건축대회는 2017 UIA 세계건축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와 한국건축단체연합 집행위원 및 실무위원 으로 구성된 홍보위원(약 23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각 단체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유치단을 모집하고 있는 바, 국제위원 회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권면함. (국제위원장).
- UIA 세계건축대회는 해외 대표단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국제위원의 참여가 중요함(이근창 자문위 워)
- 일반세션(한국)에서 발표할 발표자에 대한 지침내용과 세션 운영계 획 등을 FIKA 국제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국제위 원자)
- 제3호 : 제15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가
- 대표단 구성은 국제위원회 위원의 참가 희망 의사를 조사하여 구성하고, 회의 별 참석자 및 발표자 추천을 받아 협의함.(일본 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9.16(금)까지 대표단 명단 통보 예정)
- 제4호 : 중국건축학회(ASC) 방문 및 MOU 체결
- 10월 중 방문 일정과 대표단 구성은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MOU는 내용의 객관성을 위해 국문, 중문, 영어로 체결할 것을 중 국에 건의하기로 함.
- MOU 초안 내용 검토와 중국과의 교신은 이성란 위원이 담당하고, 중국어 및 국문 번역문에 대한 감수는 조인숙 위원이 하기로 함.
- 제5호 : 주한덴마크대사관 교류 행사 개최
- 주한덴마크대사관과의 교류 행사는 내용 상 친환경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친환경T/F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국제위원 회에서 관련 사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함.
- 일자별 세부 행사 계획을 주한덴마크대사관과 협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ARCASIA Heritage Book 배포의 건
- 프랑스 파사드 엔지니어링 강연회 개최의 건

■ 제8회 법제위원회

제8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 개정(안)의 건
- 리모델링 TF팀 회의에서 마련한 두 가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하여 각 위원이 9월 20일(화)까지 검토하고 9월 26일(월)경 별도의 축조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허가제도(심의) 개선의 건
- 건축허가신청 전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건축법상 건축허가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왕정한 위원이 차기 회의까지 개정(안)을 다시 마련하여 논의하기로 함.
- 제3호 : 기타의 건
- 건축물의 질을 높이고 건축사 업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 될 수 있도록 각 법제위원의 의견을 9월 20일까지 취합하여 정리 하기로 함.
- 설계하자 관련 책자발간의 건
- 서울건축사회 및 시도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검사시 지적되는 설계하자 등의 사례를 취합하여 TF팀 회의를 통해 정리·발췌하기로 하고, 서울건축사회에서는 회의에 참여할 특별검사 경험이 많은 서울회원 2인 정도를 추천해주기로 함.
- 내진기준 설정의 건
-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이 건축법에 규정되었으나 명확한 내진기준이 없으므로 국토부에게 요청하거나 우리협회가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저층건축물(1-2층)부분의 구조기준이 없으므로 국토부에기준안을 확인, 재촉하고 없으면 우리협회에서 기준안을 마련하여건의하기로 함.
- 건축사법 시행규칙 마련의 건
- 회장님께 방침을 받은 후 법제위원 중 연구진을 구성하여 내부연 구 형식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함.
- 감리제도 개선 연구 추진의 건
- 회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설 문조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설계와 감리분리 문제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제5회 정책위원회

제5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책위원회 워크숍 개최의 건
-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고, 논의주제 및 자료, 세부일정 등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1인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 ▶ 일시: 10월 7일(금)~8일(토)
- ▶ 장소 : 경기도 가평 팬션
- 제2호 : 친환경건축연구원 활성화 방안의 건
- 10월 7일, 8일간 개최되는 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 논의하기로 함.

▲기타사항

• 이규홍 위원이 논의 요청한 건축사등록원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1회 정관개정추진 TF

제1회 정관개정추진 TF 회의가 지난 9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추진 TF 운영방안의 건
- 정관개정 추진 TF의 운영방안은 정관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이종정 위원이 정리한 후 사무처에 통보키로 함.
- 추진일정은 김봉회 위원이 제안한 일정을 참고하여 위원장과 사무 처에서 세부일정을 확정하여 위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키로 함.
- 제2호 : 정관개정(안) 검토의 건
- 차기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제6회 행정위원회

제6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등록원 조직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의 건 -건축사등록원의 조직 및 운영규정 제정(안)을 제9회 이사회에 보고 키로 협의함
- ▶ 건축사등록원 조직구성은 원안과 같이 협의함.
- ▶ 건축사등록원 운영규정 제정(안)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위원 장과 김항년 담당이사가 협의하여 자구 수정키로 함.
- 제2호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장 검토(안)중 일부 조문을 수정 · 보완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보고키로 하며, 조문 중 '사업기관'을 모두 '운영기관'으 로 수정키로 함.

■ 제3회 재경위원회

제3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9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사 등록관리업무 준비자금 지원(대여)에 관한 건
- 건축사 등록관리업무 준비자금 지원(대여)안을 제9회이사회에 상정 키로 합의함.

우리협회,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원회 구성

우리협회는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건축사등록업무준비위 원회'와 관련, 위원들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이각표 부회장(주.엄앤드이 종합건축)이 맡게 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조직, 인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등록업무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등록업무 관련 예산운용계획 수립, 기타 세부기준 작성 등 등록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맡아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건축사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2011 여성행복 프로 젝트' MOU 체결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강석후)는 지난 8월 23일 여성T/F팀의 주관 하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현경)과 '2011 여성행복 프로젝트'협력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여성가족재단이 여성의 권익향상, 양성평등 및 여성 친화적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2011 여성행복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함 에 있어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여성건축사를 중심으로 건축문화의 발전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 물적 지원을 적극 지원하며, 생방의 정보 를 상호 교환 · 공유키로 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건축 관련 연구 과제, 보고서 작성 등의 용역 수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지역건축사회, 단합을 위한 남도건축기행 가져



수원지역건축사회(회장 황정복)는 지난 8월 26일 부터 27일 까지 1박2일 동 안 남도건축기행을 가졌 다. 이번 건축기행에는 수 원지역의 회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비회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눈길을 끌었다. 황정복 회장은 "고산고택과 기념관, 땅 끝 기행을 비롯한 진도 국립남도 국악원 체험 등의 여정을 통해 30대 신입 건축사부터 80대 원로 건축사 까지 함께했던 회원 단합의 계기가 됐다." 밝혔다.(본지 91쪽 참조)

춘천지역건축사회.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 펼쳐



춘천지역건축사회(회장 전 영석)는 지난 8월 27일 춘 천시 서면 방동리 한백록 묘역에서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건축사회원 및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 문화재 주변 환경 정비 등의 봉사를 펼쳤다.

건축계소식

제2회 국제 LED & 디스플레이 코리아 개최

'국제 LED & 디스플레이 코리아 2011(International LED & DISPLAY Korea 2011)'전시회가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엑스코 신관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첨단 정보기술(IT) 및 연관 산업이 잘 발달돼 있는 대구와 경 북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LED 산업은 최근 IT 산업과 접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작년 처음으로 엑스코에 선보인 L&D코리아는 국내 전시회에서 만날 수 없었던 필립스와 GE라이팅을 참가기업으로 유치.큰 관심을 모았다. 유양 DNU와 세미머티리얼즈, 에피밸리, 희성전자 등 LED 분야 국내 대표 기업들도 대거 참가했다.

2011 서울건축문화제 개최



서울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1일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서울 공감'이라 는 주제로 제2회 서울건축문화제를 개최 하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상, 서울건축문화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전, 기획전 시상과 전시가 이뤄진다. 또 행사기간 내에는 유명 건축사와 패션 디자이너, 영화감독과 영화평론가가 참여하는 건축 콘서트가 열리며, 서울시 내 유명 건축물과 건축상 수상 작품을 직접 찾

아가는 오픈 스쿨과 건축답사 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공사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지와 서울시 신청사 등을 개방하는 '열린 서울의 날', 한 옥 구조 만들기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문의 : www.saf2011.org

호서대학교 건축공학과 제17회 졸업설계 작품 전시회 개최



호서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호서대학교 조형과학관 4층에서 '제17회 졸업설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 개막식은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2011 제3차 AURI 정책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손세관)는 오는 10 월 5일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제3차 AURI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는 '건축법, 어떻게 달 라져야 하는가'로써 현행 건축법이 1962년 제 정 이후 부분적으로 개정되긴 하였으나. 사회 변화나 기술발전과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 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 서 현행 건축법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

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건축법제의 선진화를 위해 논의 하고자 함이다. 주제발표는 〈건축법제 선진화 추진 방향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과장〉, 〈건축심의제도의 법제적 개선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 구실 선임연구원〉, 〈건축도시환경 결정 요인으로서의 건축물 형태규제 임 유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이며, 전체토론에서는 최찬환 서울시립 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김지엽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박 인수 (주)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대표, 윤혁경 ANU도시디자인그룹 도시디 자인부문 대표, 조익수 엄&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충기 건축사사무 소 간향 대표, 조한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진흥과 과장, 황은경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계획 · 환경연구실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031-478-9657

KCC,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2년 연속 환경부 장관상 수상



KCC는 지난 9월 6일 오후 환경부가 주최한 제3회 자 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자원순환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장관상' 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자원순환 선도기업'은 제 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정개선, 기술개발, 친환경원료 사용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사전 에 억제하고 유해물질 저감. 재활용 확대를 통해 환경보전과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에 공이 큰 기업과 민간인 등에게 총 16 개의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KCC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증대를 통해 비용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 다. 특히 KCC의 전주공장은 지속적인 공정개선으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하였고, 지속적으로 재활용처리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수상했다.

KCC 관계자는 "KCC 전주 사업장은 폐기물 발생 과정의 정밀 분석을 통 해 공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였으며, 또한 기존 소각 및 매 립으로 처리되던 폐기물에 대해서도 사업장 폐기물 분류 기준 강화 및 배 출 기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체계를 확고하게 정착시킨 결과 07년 대비 공정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은 약 22%감소하였고, 재활용 처리율은 약 600% 증가하여 약 2억 5천만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효과 실적을 기록하였다."라고 설명했다.

• 문의: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www.kccworld.co.kr

(바로잔습니다)

본지 2011년 8월호(통권 508호) 52페이지 설계경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 터미널'가작 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담당 중 '정진근'을 '전진 **근**'으로 바로잡습니다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 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 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 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 워구거축사회/937-1100 · 도봉구거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 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서대무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 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 보구거축사회/927-3236 · 송파구거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 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 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 랑구건초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거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 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 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 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 (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아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보보지역 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 (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

산·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용인지 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 ■ 간워도거추사히/(∩?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 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 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 (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추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

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 (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 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 (041)932-8890 · 아산지역거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 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 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 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 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 (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 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 (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 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 (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00/1/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 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 (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 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 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 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 사회/(054)278-6129 · 구위 의성지역거축사회/ (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 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 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 (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 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 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 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 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 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 (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보행자 도로를 넓히는 도시

보행자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최초로 수립한 시카고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카고

지난 여름동안 시카고 시의 도시계획자는 도시를 가로질러 걷는 보행자들에게 무엇이 되고 안 될 것인지, 크고 작은 아이디어에 관한 여론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로, 호우 때 마다 물이 넘치는 코너가 어디인지, 또는 보행자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안전문제나 지역 내에서 어떤 범죄로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모든 관한 응답은 시카고 보행자 계획에 보고될 것이다.

지난 8월 10일 시카고시 업타운 지역 공개 토론회에서 Sam Schwartz Engineering 소속의 프로젝트 컨설턴트 Mark de la Vergne는 "어떤 보행자 계획이 될 것이냐 하면 일반적인 프레임 워크 즉, 모든 사람들은 원스톱 점 포에 온 것처럼, 우리가 건축 환경에서 보행자를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 어떻게 계속 더욱 보행자들이 걷고 싶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계획은 10년 이내에 자동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으로 종료와 같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5년 마다 50% 씩 차량에 의한 보행자 부상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제시 목표는 지난해의 보행자 사고 수치를 분석 하여 작성 되었고 그 문서는 2009년 보행자에 관련된 충돌로 34명이 사망하고 3,130명이 부상을 당했다. 양 숫자는 2005년부터 낮아졌지만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낮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5년 보다 2008년 보행자-차량 충돌의 부상자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지역 거리를 계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웃을 조 직하기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공공 달러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 를 설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교통 보행자 안전 코디네이터인 Kiersten Grove는, 이 계획은 모든 도시의 횡단보도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추가하고 적색등 뒤에 차량이 선회하는 동안 보행자들에게 거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보행자 간격"을 더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메워진 교통 체증을 없애는 도로 다이어트를 진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부서의 노력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카고 이웃에서 다양한 보행 경험은 도시 전역 계획을 만드는 도시 계획자에게 도전으로 놓여있다. "우리는 도시 전체에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de la Vergne는 인정했다. "제퍼슨 공원은 엄청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며, 리틀 빌리지에서 의견 수렴 시 범죄에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그 는 말했다.

청문회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돌아 온 Lorraine Kells은 시카고에서 최근 경험과 함께 서부에서의 운전행태에 관하여 대조하였다. "버클리에서는, 당신이 눈을 감고 도로변에서 발을 떼면 차들은 브레이크를 세게 밟을 것이고, 멈출 것이다." 그녀는 또한 말했다. "LA에서는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는 멈출 것이지만 시카고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차에 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거리를 건너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공포가 있다."라며 청중 속의 한 여성이 맞장구를 쳤다.

업타운 지역 토론회에 참석 했던 시카고 주민 Ken Cluskey는 이 도시에서 가장 붐비는 웨스턴 에비뉴를 따라 있는 몇 몇 장소를 지적하며, 그는 보행자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시카고는 현재 보행환경으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 생각에는, 시카고는 가장 보행친화적인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전 시카고 도시교통센터의 일리노이 대학의 감독인 Sim Scot는 보행자 계획에 관한 노력은 시카고를 포함한 여러 도시들의 문제 해결 방법의 일반적인 생각 전환 이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도시는 더욱 더 비 동력 운송수단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한 보행자이던 자전거이던 도시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과 조화가 되어야 한다.

이 수립된 계획은 올해 말 시행계획이다. 崮

※윗글의 일부는 ⟨http://archpaper.com/news/⟩ 의 기사 일부를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1년 7월 말

구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합	계										
건축	19	<u>ગ</u>	2'	인	3인	이상	소	계	19	인	2'	인	3	인	4'	인	5인	이상	소	계	집 계	
사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420	5,420	97	194	8	24	5,525	5,638	1,626	1,626	232	464	54	162	25	100	22	145	1,959	2,497	7,484	8,135
서울	848	848	24	48	2	6	874	902	827	827	134	268	36	108	10	40	14	84	1,021	1,327	1,895	2,229
부산	475	475	15	30	2	6	492	511	101	101	17	34	2	6	2	8	2	15	124	164	616	675
대구	450	450	19	38	4	12	473	500	67	67	17	34	3	9	2	8	2	10	91	128	564	628
인천	274	274	3	6	0	0	277	280	69	69	7	14	1	3	0	0	0	0	77	86	354	366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41	41	7	14	2	6	2	8	0	0	52	69	254	272
대전	247	247	5	10	0	0	252	257	36	36	6	12	4	12	1	4	1	15	48	79	300	336
울산	179	179	5	10	0	0	184	189	19	19	2	4	1	3	0	0	0	0	22	26	206	215
경기	758	758	2	4	0	0	760	762	236	236	20	40	2	6	2	8	1	5	261	295	1,021	1,057
강원	176	176	2	4	0	0	178	180	24	24	2	4	0	0	1	4	0	0	27	32	205	212
충북	214	214	3	6	0	0	217	220	34	34	4	8	1	3	2	8	1	9	42	62	259	282
충남	251	251	1	2	0	0	252	253	50	50	5	10	1	3	2	8	0	0	58	71	310	324
전북	248	248	4	8	0	0	252	256	22	22	2	4	1	3	1	4	0	0	26	33	278	289
전남	200	200	1	2	0	0	201	202	18	18	2	4	0	0	0	0	1	7	21	29	222	231
경북	370	370	5	10	0	0	375	380	39	39	4	8	0	0	0	0	0	0	43	47	418	427
경남	410	410	6	12	0	0	416	422	29	29	2	4	0	0	0	0	0	0	31	33	447	455
제주	119	119	1	2	0	0	120	121	14	14	1	2	0	0	0	0	0	0	15	16	135	137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 ÷101			
건축사회	건축사	2급	계	비 율	준회원
합 계	8,135	10	8,145	100%	23
서 울	2,229	3	2,232	33.9%	10
부 산	675	1	676	7.9%	9
대 구	628	0	627	7.7%	0
인 천	366	0	364	3.8%	0
광 주	272	0	272	3.7%	0
대 전	336	1	337	3.7%	0
울 산	215	0	214	2,6%	0
경 기	1,057	2	1,059	12,2%	2
강 원	212	0	212	2.6%	0
충 북	282	0	284	3.0%	0
충 남	324	3	327	3.1%	0
전 북	289	0	288	3.0%	0
전 남	231	0	231	1,9%	0
경 북	427	0	424	4.6%	1
경 남	455	0	454	5.0%	1
제 주	137	0	136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 계	비고
회원수	5,638	2,497	_	8,135	
비율	69.31%	30.69%	_	100%	
사무소수	5,525	1,959	_	7,484	
비율	73.82%	26.18%	_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